

教育學 碩士學位 請求論文

初等學校 教師의 役割과 資質에 대한
學生·學父母의 認識研究

慶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教育行政專攻

申 東 龍

指導教授 全 濟 相

2006年 6月

初等學校 教師의 役割과 資質에 대한
學生·學父母의 認識研究

指導教授 全 濟 相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6年 6月

慶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教育行政專攻

申 東 龍

申東龍의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인

審査委員 인

審査委員 인

慶州大學校 教育大學院

2006年 6月

목 차

| | |
|-------------------------|----|
| I. 서 론 | 1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4 |
| II. 이론적 배경 | 5 |
| 1. 교사와 교직의 특성 | 5 |
| 2. 교사의 역할 | 10 |
| 3. 교사의 자질 | 17 |
| 4. 바람직한 교사 | 25 |
| 5. 선행연구 고찰 | 30 |
| III. 분석모형 및 조사설계 | 35 |
| 1. 분석모형 정립 | 35 |
| 2. 조사설계 | 36 |
| 3. 자료처리 | 37 |
| IV. 조사 결과 분석 및 논의 | 38 |
|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38 |
| 2. 분석 결과 | 39 |
| 3. 종합적 논의 | 69 |
| V. 요약 및 결론 | 75 |
| 1. 요약 | 75 |
| 2. 결론 | 78 |
| 참 고 문 헌 | 80 |
| ABSTRACT | 82 |
| 부 록 | 85 |

표 목 차

| | |
|-----------------------------------|----|
| <표Ⅲ-1> 설문지 영역별 문항 구성 내용 | 37 |
| <표Ⅳ-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38 |
| <표Ⅳ-2> 학습 지도 방법 선호도 | 39 |
| <표Ⅳ-3> 과제 제시 방법 선호도 | 41 |
| <표Ⅳ-4> 독서 지도 선호유형 | 42 |
| <표Ⅳ-5> 시험평가 후 처리방법 선호 | 43 |
| <표Ⅳ-6> 학습을 통한 능력향상 | 44 |
| <표Ⅳ-7> 발표 진행 방법 선호 | 45 |
| <표Ⅳ-8> 아침 자습 지도 방법 | 46 |
| <표Ⅳ-9> 일기 쓰기 지도 방법 선호 | 48 |
| <표Ⅳ-10> 일기 내용 지도 방법 | 49 |
| <표Ⅳ-11> 학생 지도 방법 선호 | 51 |
| <표Ⅳ-12> 체벌에 대한 생각 | 52 |
| <표Ⅳ-13> 급식 지도 방법 | 53 |
| <표Ⅳ-14> 학생에 대한 선생님의 자세 | 54 |
| <표Ⅳ-15> 잘못을 저질렀을 때 지도 방법 | 55 |
| <표Ⅳ-16> 상담시 문제 주제 선호 | 56 |
| <표Ⅳ-17> 학급경영에 있어 가장 힘써야 할 일 | 58 |
| <표Ⅳ-18> 선생님과 학생간의 관계 | 59 |
| <표Ⅳ-19> 학생들의 자리 배치 방법 | 60 |
| <표Ⅳ-20> 학부모님과 선생님 의견 교환 방법 | 61 |
| <표Ⅳ-21> 친구와 싸웠을 때 처리방법 | 62 |
| <표Ⅳ-22> 학급 임원 임명 방법 | 63 |
| <표Ⅳ-23> 선생님의 성격유형 선호 | 65 |
| <표Ⅳ-24> 선생님의 말씨 선호 | 66 |
| <표Ⅳ-25> 선생님의 복장 유형 | 67 |
| <표Ⅳ-26> 훌륭한 선생님의 유형 | 68 |

그 림 목 차

| | |
|---|----|
| <그림Ⅲ-1> 초등학교 교사의 역할과 자질에 대한 인식분석 모형 | 35 |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육이란 말은 우리가 사용하는 말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 하나이다. 하지만 교육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는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교육의 정의는 시대와 교육적 가치와 교육사상에 따라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의 개념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루소(J. J. Rousseau, 1721~1778)나 케이(Ellen Key, 1849~1916)는 개인성, 자연성의 견지에서 「교육은 인간의 자연적 발달을 위한 모든 조성활동이다」라고 교육을 정의하였다. 페스탈로치(J. H. Pestalozzi, 1746~1827), 나토르프(P. Natorp, 1854~1924), 크리크(E. Kriek, 1882~1947) 등은 사회적 견지에서 교육을 정의하기를 「교육은 사회개선의 계속적인 수단이다」라고 하였다. 듀이(J. Dewey, 1859~1952)는 생활경험의 견지에서 「교육이란 생활이며, 성장이고, 사회과정이며, 축척된 경험의 재구성」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상과 같이 교육에 관한 개념을 여러 학자들이 각기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나,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 형성 과정인 동시에 작용이라는 공통적인 견해로 집약할 수 있다. 교육은 미성숙자의 성장발달을 조성하며 가치 있는 방향으로 인도하고 변화시키는 작용이다. 그러므로 교육이란 인간의 행동을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며 형식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인 것이다.¹⁾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사람으로서의 구실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사람으로서의 구실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해내야 하는 것들이 있고 각 개인의 입장에 따라 해야 할 것들이 있다. 공통적인 구실이든, 개

1) 허영부, 현대교육학 개론(서울: 학문사, 1998), pp.9-14.

인적인 구실이든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은 교육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는 지식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인적자원이 지식기반의 주체이며 국가발전의 원천이 된다. 이런 이유로 창의성과 다양성을 갖춘 인적자원을 양성하고 지식을 창출하는 교육의 중요성이 20세기 산업사회보다도 훨씬 더 강조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개인과 기업의 생산성과 국가경제의 성장이 교육경쟁력에 의해 결정될 전망이다.²⁾

교사는 교육, 특히 학교교육의 주체요, 관건이며, 핵심이다. 모든 교육활동은 교사 없이는 성립되지 않는다. 독학이나 자기학습의 경우도 교사에 의한 최종적인 지도와 검증 없이는 완성되지 않는다. 학교교육의 경우는 좋은 교과서나 학습 자료가 아무리 잘 갖추어져 있고, 학교의 시설이 아무리 훌륭하게 설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교사가 없으면 성립되지 않는다. 가령 물질적인 조건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탁월한 교사만 있다면 훌륭한 교육을 기대할 수 있다. 배가 수면 이상의 수준으로 뜰 수 없듯이 교육의 수준은 교사의 수준 이상의 것이 될 수 없다. 교사를 교육의 주체, 교육의 관건, 교육의 핵심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교사의 질이 교육의 질’이라는 사실이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유네스코는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라는 문서로서 각국 정부가 교원의 지위와 신분을 보장하여 우수한 교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³⁾

21세기 한국 교사의 모습은 역사상 그 어느 시대보다도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달라져야 한다. 학교와 교사에 대한 사회의 요구는 훨씬 더 광범위하고 다양하며 심지어 도전적이 되고 있다. 그 예로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일기 쓰기가 이제는 인권 침해의 논란을 빚고 있다. 그리고 때려서라도 바른 사람을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체벌은 금지되어야 할 비인격적 행위로 규정지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맞벌이 가정이 많아지면서 이제는 보육 시설로의 기능까지 요구받고 있다. 그러면서 교사는 학생들의

2) 김영철 외, 정보지식사회에 따른 학제 다양화 방안(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04), p.1.

3) 광영우 외, 예비교원을 위한 교사론(서울: 교육과학사, 1997), pp.28-29.

개별적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도록 안내해야 한다는 교사에 대한 기대는 앞으로 더욱 강하게 주장될 것이다. 즉 교사의 학생에 대한 강한 책무성이 강조될 것이다. 아마 21세기의 학생들은 이전 세기의 학생들보다도 더욱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학교에 들어올 것이며, 그들의 능력의 차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다. 교사는 가르치는 내용 뿐 아니라, 직무상 실천과 관련된 지식이 너무 빨리 변화하고 있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해하여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일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에 대한 그런 기대와 주장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은 매우 역설적이라고 볼 수 있다.⁴⁾ 그것은 앞으로의 교육이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수요자 중심이란 학생과 학부모가 기대하는 다양한 요구를 교육이 충족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이라는 것은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상품과는 달리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를 충족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학생 그리고 학부모가 기대하는 교사의 역할에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 현 시대에서 요구되는 바람직한 교사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인식을 비교해 봄으로써 어떠한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지 알고 올바른 교사로서의 역할과 자질을 정립하는 일은 교육의 성과와도 직결될 만큼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다.

바람직한 교사로서 역할과 자질을 정립하는 일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상적인 특성을 다 열거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며, 설령 이상적인 모습이 제시된다고 해도 그러한 모습 내지 특성을 다 갖춘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이상적인 특성을 지니지 않은 훌륭한 교사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⁵⁾

교사의 역할과 자질에 대한 기대는 시대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따라서 급속한 변화 속에서 추락한 교권을 회복하고 교육 개혁의 시대적 요청에 알맞은 교사의 모습을 정립하는 일은 중요하다. 교사들은 시대가 요구하는

4) 황기우, 21세기 교사의 역할(서울: 원미사, 1998), p.13.

5) 서정화, 「사회변화와 바람직한 교사상」, 교육마당21(2001), p.38.

교사의 모습에 맞추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기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교사의 모습을 확인하는 일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교사의 모습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최근에 변화된 교사의 모습에 대한 인식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상적인 교사의 모습을 그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교육공동체의 합의를 도출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적어도 바람직한 교사의 모습을 상정하는 일은 교사 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교사로서 지향해야 할 지향점과 준거가 된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역할과 자질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을 알아봄으로써 교사들로 하여금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적합한 교사로서의 위상 정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교사의 교수-학습지도면에서 어떤 교사를 기대하는가?

둘째, 초등학교 교사의 생활지도면에서 어떤 교사를 기대하는가?

셋째, 초등학교 교사의 학급경영면에서 어떤 교사를 기대하는가?

넷째, 초등학교 교사의 개인적 특성에서 어떤 교사를 기대하는가?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조사 방법과 설문지 조사방법을 병행하여 수행하였다. 문헌 고찰은 교사의 역할과 자질에 대한 선행연구물과 문헌 그리고 연구 보고서를 참고하였다. 이를 통하여 교사의 역할과 자질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정립하고, 연구의 측정도구로 활용할 설문지의 내용을 구성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교사와 교직의 특성

가. 교사의 개념

교사(敎師)는 통상 ‘가르치는 사람’, 즉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나 ‘가르치는 사람’ 모두를 교사라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왜냐하면 ‘가르친다’는 말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교사의 정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모두를 교사라 정의하기도 쉽지 않다. 왜냐하면 교육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교사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교사라는 용어 자체도 비슷하게 사용하는 예가 많아 혼란을 일으킨다. 여기에서는 교육의 의미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흔히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에 따라 교사란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것 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교육을 무엇이라고 규정하는가에 따라 교사의 의미는 달라진다. 흔히 교육을 ‘인간행동의 계획적인 변화’라고 한다. 이와 같은 정의에 따르면 교사는 학생들의 행동을 계획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학생들의 행동을 계획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면 모두가 교사라고 할 수 있는가? 윤종진(1996)은 이와 같은 사람을 교사라기보다는 교육자(敎育者)라고 정의하고, 교사도 교육자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교육자와 동의어로는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아무리 인간행동을 계획적으로 잘 변화시킬 줄 아는 사람이라도 특정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교사라고 부를 수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교육자는 어떤 특정부류의 직업인을 가리키기보다는 일반적인 능력자로, 교사란 그 능력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그 직업(職業)을 가리키는 말이라 주장하였다.

교사는 또한 교육자, 선생, 스승 등으로 불리우기도 한다. 그러나 엄밀히 살펴보면 각각의 의미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먼저 교육자는 대체적으로 학생들의 교육에 관련된 사업을 하거나 교육발전을 위해 공헌하는 사람 모두를 지칭하는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고, 선생은 배우는 자보다 앞서 태어나 먼저 많은 경험을 한 자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가르쳐주는 것에 대한 높임말로, 학예가 뛰어난 사람에 대한 존칭어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스승이란 대체적으로 생의 전환점을 이루는 데 획기적인 영향을 준 사람으로 꼭 교사나 교육자에 국한하여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에 교사는 특정한 직업인을 일컫는 말이라 할 수 있다. 교육을 업(業)으로 삼고 정규학교에서 학생들의 학습경험을 안내하고 지도하는 사람, 교원 교육기관에서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교원자격증을 획득하여 공식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은 후 학생들의 성장 발달에 이바지하는 사람을 말한다. 한편 교사와 함께 쓰이는 말로는 교원(敎員)이 있는데, 일반적인 교원은 교사의 법적인 용어로 사용하나 그 의미를 굳이 구분한다면,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 개개인을 부를 때 사용하교, 교원은 교사들을 집단으로 부를 때 사용하는 것으로 학교기관에서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하겠다.⁶⁾

정우현(1992)은 스승·선생으로서 교사,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교사, 교원으로서의 교사로 나누어 교사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스승·선생으로서의 교사개념은 단순한 학술이나 기예의 전수관계를 넘어서 인격적인 감화라는 측면이 강하게 내재되어 있다. 직업인으로서의 교사는 가르치는 일을 직업활동으로 수행하는 사람으로 일정한 양성과정을 거쳐서 자격증을 받고 공공 교육기관인 학교에서 공적으로 채용되어 교육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교원은 학교기관에서 가르치는 모든 사람을 집단적으로 통칭하는 말로 교사라는 용어와 거의 혼용해서 사용한다.⁷⁾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개념을 교사란

6) 류동훈, 교사론(서울: 창지사, 2004), pp.48-49.

7) 정영수 외, 교사와 교육(서울: 문음사, 1998), pp.14-18.

직업인을 일컫는 말로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획득하여 교육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을 지칭한다.

나. 교직의 특성

직업의 특성은 개인적인 면에서 생계유지 수단인 동시에 자아실현의 과정이며, 사회적 측면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교직은 이러한 일반직업과 공통되는 특징을 가지는 동시에 일반직업과 구분되는 교직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특성은 다음과 같다.⁸⁾

첫째, 교직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인 것이다. 물론 다른 직업도 인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전인으로서의 인간 전체를 총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교직은 지식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인적인 인간, 즉 인간다운 인간을 길러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둘째, 교직은 인간의 정신적인 생활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이다. 즉 의사나 법률가들이 다루는 병적인 증상이나 법률적인 측면의 한정된 정신적 기능이 아니라, 미성숙한 학생들의 건전하고 이성적이며 건강한 정신을 양육하는 직업이다.

셋째, 교직은 주로 미성숙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미성숙은 아직 성장하지 않은 어린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어린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무한한 성장가능성을 가진 인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직은 이와 같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인간을 성숙한 인격을 가진 이상적인 인간으로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직업인 것이다.

넷째, 교직은 봉사직이다. 따라서 다른 직업과는 달리 물질적, 경제적인 추구보다는 국가와 사회에 대한 소명의식과 헌신적인 자세가 더 요구되며, 흔히 교직을 천직이니 성직이니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의미에서 그렇다.

8) 기순신, 교사론(서울: 학지사, 2001), pp.25-27.

다섯째, 교직은 국가와 민족에 대하여 지대한 영향을 주는 공공 기업이다. 개인적 측면으로 볼 때에는 미성숙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지만, 국가나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민족의 장래를 짊어질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직은 국가와 민족의 장래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공공사업인 것이다.

끝으로 교직은 사회 발전에 중대한 역할을 맡아야 하는 직업이다. 교육의 중요한 기능은 지금까지 쌓아온 인류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계승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교사는 인류가 축적해온 문화유산을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동시에 현재를 출발점으로 하여 보다 나은 문화를 창조하는 데에 주역이 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교직은 교직만의 여섯 가지 특성을 이해하고 학생을 가르칠 때,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다.

다. 교직관의 유형

교직관의 유형⁹⁾은 교육의 본질과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성직관, 노동직관, 전문직관으로 구분된다. 이 세 가지 유형은 각기 다른 사회인식과 철학적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첫째, 성직관이다. 성직관의 주장은 교육하는 일은 기계로 물건을 생산하거나 물건을 판매하는 직업과는 달리 인간으로 하여금 장래의 성공적인 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의 성장 발달을 도우고 이의 형성을 도모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다른 직업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숭고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서 알 수 있듯이 교직은 고도의 정신적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세속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직업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인데 이러한 생각은 그 동안 많은 교직자들 자신은 물론이고 사회 각계 인사들이 바라는 바였다.

9) 황의일, 예비교원을 위한 교사론(서울: 교육과학사, 1997), pp.60-64.

성직관은 전통적 학교관을 토대로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교사의 교직 기술을 매우 경시하고 있다. 즉 교사는 교사로서 적합한 인격만 갖추고 교수하는 내용을 구성하는 학문에 관한 지식만 갖고 있으면 누구나 교사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다.

둘째, 노동직관이다. 노동직관은 교사가 아무리 인간형성이라는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역시 교사도 학교라는 직장에서 일정한 근무조건에 따라 보수를 받고 일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노동자의 근무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들의 입장에 따르면, 교사는 사회·경제적 지위에서 보면 봉급생활자이며 정신노동자로 규정된다. 교사는 고용주체인 국가나 학교법인에 대하여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를 맺는다. 다시 말하면 교사는 사용자에 의하여 고용되고 사용자의 이익에 봉사하는 임금 노동에 종사한다는 것이다. 교사는 생산직 노동자와 달리 노동과정에서 그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 교사는 연구직 노동자처럼 전문직 노동자라는 것이다. 그래서 노동의 대상이 학습자인 인간이며 그 생산물은 학습자의 전면적 발달이라고 본다.

이 교직관은 교육과 교직의 문제를 이상적이고 당위적인 차원에서가 아닌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여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와 관련된 부정적인 문제를 파헤치는 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한다. 그리고 교사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침해를 차단하려는 노력에 있어서도 긍정적이나, 노동자의 개념이 사실 모호하고, 노동3권의 보장, 특히 단체행동권의 보장은 교사의 파업으로 인해 파급될 수 있는 문제가 너무나도 클 수 있다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 단점이 있다.

셋째, 전문직관이다.¹⁰⁾ 전문직관은 오늘날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입장으로 성직관과 노동직관의 장점을 통합하려고 하는 입장이다. 전문직관은 교직을 지적·정신적 활동을 위주로 하는 직업으로 보며, 이기적인 활동이 아닌 이타적 봉사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고도의 자율성과 윤리성을 존중하며 바람직한 인격형성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볼 때 성직관과

10) 류동훈, 전계서(서울: 창지사, 2004), pp.63-64.

유사하고, 교원의 자질향상과 교권확립,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교직단체를 조직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진취적으로 교원의 권익신장과 지위향상을 쟁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노동직관과 유사하다.

전문직관의 특징은 크게 네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교직의 전문적 자율성에 대한 요구로 교육이란 인간의 의식 또는 정신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가 전문적인 자율성 없이는 그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다.

둘째, 전문직관에서는 교사에게 높은 수준의 전문적 지식과 이론적 무장을 요구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셋째, 교사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일 것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교사가 지나치게 정치적인 성향을 보일 경우 자칫 학생들에게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종교, 인종, 성, 지역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넷째, 바람직한 교육을 위하여 교사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보다 향상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한다. 이는 노동직관과 동일한 주장인데, 교사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경제적으로 많은 보상을 받으면 우수한 인력이 교직으로 흡수되고 교직의 전문적인 수준이 향상되고 교육의 질이 고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교사의 역할과 자질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교직관의 유형을 취하느냐에 따라 바람직한 교사상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

2. 교사의 역할

교사는 교육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모든 교육적 활동이 곧 교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효과적인 교육의 수행을 위해 교사들은 수많은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역할이라는 용어는 집단 내에서 개인의 행위 및 특성을 규정할 때 사용

하는 개념이다. 교사의 역할은 교육현장에서 교사의 지위를 내포한 용어로서, 교사가 담당해야 할 역할행동, 교사들에게 거는 기대 등을 말한다.

특정 지위에 대한 역할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회·문화·제도적 상황에 따라 달리 규정되어져 왔기 때문이다. 이는 교사의 역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원시시대에서의 교사역할과 정보화 사회에서의 교사의 역할이 같을 수 없으며, 같은 교사라 할지라도 직급이나 부여되는 업무 및 학교외적인 환경 등에 의해 그 역할이 다르다. 오늘날에도 다양한 사회, 집단 및 개인들로부터 각기 다른 기대를 받고 있어 어느 한 측면에서 그 역할을 규정짓기란 매우 어렵다. 그래서 학자에 따라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어 왔다.

리들(F. Reedle)과 바텐버그(W. W. Watenberg)는 사회 대표자로서의 역할, 판단자로서의 역할, 지식 자원으로서의 역할, 학습의 조력자로서의 역할, 심판관으로서의 역할, 훈육자로서의 역할, 동일시 대상으로서의 역할, 불안 제거자로서의 역할, 자아 옹호자로서의 역할, 집단 옹호자로서의 역할, 부모 대리자로서의 역할, 적대 감정 표적의 역할, 친구로서의 역할, 애정의 대상자로서의 역할로 세분하여 제시하고 있다.¹¹⁾

호일(E. Hoyle)은 산업사회 이전의 역할, 산업사회에서의 역할, 학교에서의 역할, 교실에서의 역할로 분류하였다.¹²⁾

류동훈은 교원의 역할을 학급에서의 역할, 학교의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사회적 측면에서의 역할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¹³⁾

김종철은 학급경영자, 학습지도자, 생활지도자로 제시했고, 정원식은 교과 지도자로서의 역할, 학생들과 진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자로서의 역할, 가치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제시했으며,¹⁴⁾

정영수는 교육전문가로서 교사의 역할은 교과수업의 전문가, 상담의 전

11) Reedle, F., Watenberg, W.W., Mental Hygiene in Teaching, New York : Harcourt, Brace & Co. 1951. pp. 236-238.

12) Hoyle, E., The Role of The Teacher, New York : Humanities Press, 1969, pp.14-68.

13) 류동훈, 전개서(서울: 창지사, 2004), pp.105-115.

14) 김종철 외, 최신 교사론(서울: 교육과학사, 1996), pp.107-109.

문가, 학교교육의 전문가, 학급경영의 전문가로 구분될 수 있다고 하였다.¹⁵⁾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에서 발간된 교사론에서는 교사의 역할을 기본적인 역할, 학교에서의 직업적인 역할, 학교에서의 비형식적 역할, 교사의 부수적인 역할, 학급에서의 교사의 역할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¹⁶⁾

최희선은 「학교·학급경영」에서 학급교사의 주요 역할을 교수·학습지도 활동, 교육과정의 계획, 교육활동의 평가, 생활지도, 특수아동의 지도, 학교 및 학급사무의 처리, 학교행정의 참여로 나누고 있다.¹⁷⁾

김정일은 경쟁사회에서 교사의 역할에 과열경쟁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했다.¹⁸⁾

한숙경은 교사가 수행하는 역할을 수업전문가로서의 교사, 동기유발자로서의 교사, 경영자로서의 교사, 지도자로서의 교사, 상담자로서의 교사, 모델로서의 교사, 반영적 전문가로서의 교사로 구분하고 있다.¹⁹⁾

김봉수는 교육과정적 역할, 학교 경영자의 역할,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자적 역할²⁰⁾, 이병진은 교직적 역할, 사회적 역할로 구분하였다.²¹⁾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사의 역할은 학자, 연구 목적, 시대적 상황 등에 따라 교수-학습적인 측면, 생활지도적 측면, 사회변화와 요구에 따른 측면,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측면, 그리고 개인적 측면 등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교사의 역할을 교수·학습지도자로서의 역할, 생활지도자로서의 역할, 학급경영자로서의 역할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15) 정영수 외, 전개서(서울: 문음사, 1998), pp.147-182.

16)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론(서울: 교육과학사, 2004), pp.68-82.

17) 최희선, 학교·학급경영(서울: 형설출판사, 2004), pp.278-280.

18) 김정일 외, 교육학개론(서울: 학지사, 2000), pp.298-299.

19) 한숙경, 신교사론(서울: 학지사, 2003), pp.72-75.

20) 김봉수, 초등교사론(서울: 형설출판사, 1993), pp.94-106.

21) 이병진, 현장 교사론(서울: 양서원, 1998), pp.290-291.

가. 교수·학습지도자로서의 역할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학급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의 교수활동과 아동들의 학습활동이다. 학습활동은 학생들의 일이지만 교사의 지도가 항상 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교에서 아동들을 가르치는 교수활동과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효율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활동에 많은 시간을 보낸다. 교사의 직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자에 대한 학습지도자로서의 교수활동이며, 아동들의 학교생활에 있어서 중시과제가 되는 것은 학습활동이다. 따라서 학습지도와 교수활동이 교사의 제1차적인 임무인 것이다.

학습지도 영역을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학습지도 준비 영역이다. 학습지도 준비 영역에는 지도안 작성, 교재연구, 교수자료 준비 등이 있다. 둘째, 교과지도 영역이다. 교과 지도, 기술(실과)교과 지도, 예·체능 교과 지도, 교과 지도의 평가 등이 있다. 셋째, 특별활동 지도 영역이다. 특별활동 지도에는 자치활동, 적응활동, 계발활동, 봉사활동, 행사활동 등이 있다. 넷째, 특수아 지도 영역이다. 지도 영역에는 지진아 지도, 부진아 지도, 장애아 지도, 우수아 지도, 영재아 지도 등이 있다. 다섯째, 가정학습 지도 영역이다. 가정학습 지도 영역에는 예습 지도, 복습지도, 자습지도, 과제지도, 방학지도 등이 있다. 여섯째, 특기적성 지도 영역이다. 특별보충지도가 여기에 해당한다.

기초 학습의 형성을 목표로 하는 초등학교에서 교수·학습지도자로서의 교사의 역할은 교사로서의 기본 업무이며 기본적인 역할 중에서도 인격 형성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학부모의 교육열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볼 때 그 비중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기초 교육을 충실히 다져 앞으로 자신의 미래를 가꾸어 갈 수 있는 발판을 다져주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나. 생활지도자로서의 역할

교사의 역할 중에서 교수·학습지도자로서의 역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생활지도자로서의 역할이다. 교사는 학습자의 학습활동을 지도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선도하여 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지도와 지원을 해야 한다. 교사는 적절한 지도와 조언으로 학습자들의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하여 그들이 원만한 해결에 이르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생활지도자는 학습지도와 더불어 교육에 있어서 2대 분야를 이루고 있는 동시에 교사 고유의 활동분야로서 대단히 중요한 기본 임무이다. 생활지도자로서의 교사는 개별적으로나 집단적으로 학습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주고, 지도·조언하여 문제해결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생활지도 영역으로 다음을 들 수 있다.

첫째, 인성지도 영역이다. 인성지도 영역에는 정서안정 지도, 사회성 지도, 성격 지도, 문제아 지도, 행동누가기록과 지도 등이 있다. 둘째, 학급상 문제 지도영역이다. 지도 영역으로 학교·학급생활의 적응 지도, 학습부진아 지도, 수업태도 지도 등이 있다. 셋째, 진로 및 직업지도 영역이다. 진로 및 직업지도 영역에는 적성·흥미·능력에 맞는 진로지도, 1인1기 지도 등이 있다. 넷째, 건강지도 영역이다. 건강지도 영역에는 안전지도, 위생지도, 급식·식사지도, 성교육, 신체·체질·체능 검사 및 지도 등이 있다. 다섯째, 여가지도 영역이다. 지도 영역에는 여가의 선택과 활용방법 지도, 유용한 취미·오락·스포츠에 대한 지도, 방학생활 지도, 놀이지도²²⁾ 등이 있다.

인격형성의 기초를 확립하는 초등학교 교육에서 올바른 인격을 형성하도록 지도하는 생활지도는 학습지도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다. 핵가족, 개인 중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격적 요소 및 개인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을 가르치는 학교에서의 생활지도는 중요성이 더욱

22) 최희선, 전계서(서울: 형설출판사, 2004), pp.273-281.

증대되어 가고 있다.

다. 학급경영자로서의 역할

학급경영이란 무엇인가? 학자에 따라 그 의미를 달리하고 있다. 김봉수(1982)는 학교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학교경영을 학급단위에서 실천하기 위하여 학급의 여러 가지 조건을 정비, 확립하는 활동이라 하였다. 남정걸(1992)은 아동, 학생의 학습과 생활지도를 위한 학교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단위인 학급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학급성원의 협동적 행위를 조성하는 집단과정으로 정의하였다. 신철순(1996)은 학급담임 교사가 단위학급 수준에서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아동의 학습과 생활지도 등 제반 학급활동에 대하여 역동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협동적 집단과정이라 하였다.²³⁾

이를 종합해 볼 때, 학급경영은 학교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반 교육활동의 기본단위인 학급조직을 통해, 교육목표를 달성하고자 계획·조직·실천·지도·평가 등이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이며, 교수·학습활동과 생활지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교육경영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면 학급경영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제로 추구해야 할 구체적인 과업의 영역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교사가 수행해야 할 경영과업은 조장활동과 유지활동의 두 가지 과업으로 분류된다. 조장활동은 학급을 협동적 사회체제로 발전시키는 활동으로써 학급집단의 통합적이고 협동적인 관계 수립, 학급에서 행동 기준이나 규칙 및 절차의 확립과 그것들의 조정과 합의, 집단의 문제해결을 통한 학급체제의 조건 개선, 개인 또는 집단활동을 제약하는 학급체제 조건의 수정이나 변화 등이 있다.

유지활동으로는 학급집단의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조정하는

23) 한숙경, 전게서, p.260.

과정으로서 갈등해소, 사기진작,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 배양 등이 여기에 포함되는 활동이다. 한편 학급경영체제의 유지과업은 학생들이 학급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고 그들의 학급활동을 유지시키는 활동으로 주의깊은 학생점검 또한 관찰, 적절하지 못한 학생행동에 대한 신속하고 적합한 대응, 보상체제, 벌 및 기타 행동결과 이용, 과제완수를 위한 책임 확립, 수업 혹은 활동 흐름의 유지 등을 들기도 한다.

또한 학급경영 과업을 학생의 학급활동 참여와 협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교사가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하고, 이 정의에 포함되는 활동으로 물리적 환경 정비, 학급절차의 확립과 유지, 학생행동 점검, 문제행동의 해결 처리, 학급활동에 대한 학생 책임 유지, 수업 등을 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영활동들을 행동기준 설정과 학급경영체제 유지라는 두 가지의 경영행위로 분류 정리하고, 이를 성공적인 학급경영을 위한 교사의 경영과업으로 삼고 있는 주장도 있다.

여러 학자나 실무자들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학급경영의 주요과업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학급경영에 관한 철학을 확립하고, 학급경영의 목표와 경영계획의 수립, 학급 학생들 개개인의 특성과 학급집단의 풍토 등 학급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파악, 학급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여건을 조성, 교수·학습 활동의 관리와 특별활동 지도, 건강을 비롯한 제반 생활 및 진로지도, 학급의 제반 사무관리,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활동, 학급경영의 진단 및 개선 등이다.²⁴⁾

학급경영이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학교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학교경영을 학급단위에서 실천하기 위하여 학급의 여러 가지 조건을 정비, 확립하는 활동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학급담임교사는 학교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청결하고 교육적인 교실의 환경, 면학분위기 조성, 허용적인 학급 풍토, 확고한 경영 방침 등을 바르게 세워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교사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

24) 최희선, 전게서, pp.273-276.

하고 싶다. 교사는 교수·학습지도자로서 학습효과의 극대화를 가져오기 위해 다양한 학습지도 영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은 물론, 생활지도자로서 학생들의 올바른 인격적 성장을 위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들에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또한 학급경영자로서 학급의 풍토를 바르게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이 학급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교사의 자질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사가 갖추어야 할 필요 조건은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의 자질과 자세이다. 교육의 질은 교육자의 질적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다는 엄연한 사실 때문에 어느 사회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교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그 능력을 고양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추진하는 일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훌륭한 교사에게 요구되는 자질이 어떤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실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G. Highet는 좋은 교사의 특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²⁵⁾

첫째, 자기가 맡은 학과목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둘째, 자기가 맡은 학과목을 좋아해야 한다. 셋째,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을 좋아해야 한다. 넷째, 훌륭한 교사는 광범위한 지적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다섯째, 훌륭한 교사는 유머의 소유자다. 여섯째, 교사는 기억력, 의지력, 친절 등의 필수적인 재능이 있어야 한다.

N. Postman에 의하면 유능한 교사는 다음과 같은 자질을 요한다.²⁶⁾

첫째, 협조자, 둘째, 학생들의 무한한 잠재능력을 인정하고 이를 개발시

25) G.Highet, 박창해(역), 교수기술(서울: 사상계사, 1955), pp.12-94.

26) N.Postman 외, 『21세기를 위한 학교와 교사』(교육신서 150), 서울:배영사, 1987, p. 141.

킨다. 셋째, 다양하고 풍부한 유머감각, 넷째, 학생들이 교실에서 좋은 감정으로 있도록 한다. 다섯째, 긍정적이며, 학습을 긍정적으로 하도록 대화한다. 여섯째, 풍부하고 섬세한 감정의 소유자, 일곱째, 공명정대하고 융통성이 있다. 여덟째,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정을 통제·조절할 수 있고 민주적이다.

B. O. Smith는 교사가 교수활동 속에서 의도한 교육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교사 자질의 영역을 학습과 인간행동에 대한 이론적 지식, 진정한 인간관계의 형성을 촉진하는 태도, 교과에 관한 지식, 학습을 촉진하는 교수기술로 제시하였다²⁷⁾

이병진은 한국 현대 사회에서 요구되는 교사의 자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²⁸⁾ 첫째, 교사는 무엇보다도 먼저 훌륭한 인격자이어야 한다. 둘째, 교사는 사랑의 실천가이어야 한다. 셋째, 교사는 투철한 국가관과 올바른 역사적 안목을 지녀야 한다. 넷째, 교사는 스스로 사회제도적 역할과 임무에 대한 자각을 가져야 한다. 다섯째, 폭넓은 교양의 토대 위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

김정일, 김창곤, 김진한은 바람직한 교사의 모습을 사랑을 나누는 선생님, 행함으로써 가르치는 선생님, 좋은 점을 예언하는 선생님, 향기가 풍겨나는 선생님, 학생의 편에서 생각하는 선생님, 칭찬을 아끼지 않는 선생님이므로 제시하였다.²⁹⁾

최성락은 교원의 자질을 전통적 측면, 행동주의적 측면, 인본주의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³⁰⁾

전통적 측면에서의 자질 요소로서는 교과지도력(교양, 교직이론, 교과지식, 교과조직력, 교육방법과 기술, 설명 능력), 학생의 이해력(아동에 대한 사랑, 아동발달 이해), 교직에 대한 태도(교직에 대한 신념과 열성, 친절함

27) 최희선 외, 『교사교육의 현실과 전망』 (교육신서 180), 서울:배영사, 1990, p.21.

28) 이병진, 전개서(서울: 양서원, 1998), pp.403-405.

29) 김정일 외, 전개서(서울: 학지사, 2000), pp.308-310.

30) 최성락 외, 교사론(서울: 교육과학사, 2004), p.83.

태도, 연구적 자세, 협동적 자세, 공정성, 성실성, 관용적 태도), 개인적 태도(다양한 취미, 비판적 판단력, 원만한 성격, 외모) 등을 들 수 있다.

행동주의적 측면에서 자질의 요소로서는 수업능력(수업계획, 진단 및 평가능력), 교과능력(교과에 대한 지식, 목표설정 능력, 교과조직능력), 촉진 능력(의사소통, 인간관계, 동기유발) 등을 들 수 있다.

인본주의적 측면에서 자질의 요소로서는 아동에 대한 태도(긍정적 지각, 존중, 사랑), 자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수용적 태도, 진실한 태도, 공감적 이해) 등을 들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교사의 자질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사의 자질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기본적인 자질 중에서 개인적 특성에 해당되는 부분을 따로 제시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가. 인간으로서의 자질

교육은 인격적인 만남과 따뜻한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이다. 교사의 따뜻한 인간미는 학생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만들어 교사·학생간의 상호작용활동을 활발하게 해준다. 그러므로 교사의 정서활동을 포함한 인간적인 자질은 모든 교수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교육기술과 자료와 시설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교사의 인간성은 학생들의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미숙한 학생을 어떻게 한 인간으로서 사회인으로서 성숙한 인간이 되게 하느냐에 그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교사 자신이 인간적으로 훌륭한 인격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적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는 심신이 건강해야 한다. 건전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들

듯이 신체가 허약하면 교수활동에서도 역시 허약성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정신적인 면에서도 허약한 교사는 학생들을 건전하게 이끌어 갈 수가 없다. 정신적인 건강이란 인내심이 강한 의지와 올바른 사고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조화로운 정서생활을 할 수 있는 감성 등을 갖춘 것임을 의미한다.

둘째, 교사는 풍부한 교양을 지녀야 한다. 풍부한 교양을 지녔다는 것은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학문적인 측면에서의 일반화된 지적 수준의 이해뿐 아니라 문학, 예술, 체육에 관한 어느 정도의 소양을 갖추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교양은 하나의 이해단계에 머무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일상생활을 통해 그것이 생생하게 활용, 실천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교사는 교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이른바 소명의식이 필요하다. 오천석은 교사의 임무는 단순한 직업이나 노동이 아니라 그에게 소명감을 주는 비전과 헌신에 의하여 인식되어야 한다. 비전과 헌신을 속성으로 하는 소명감에서 비롯되지 않은 교육은 산 교육이라 할 수 없다. 소명감이 있으면 교사는 산 스승이 될 수 있고, 어린이의 영의 성장을 돕는 참된 교육자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교사에게 기본적으로 요청되는 것은 소명의식이며, 그 소명감이란 내일의 생명을 키운다는 비전·정열·충성을 다하는 헌신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다.

넷째, 교사는 민주적이어야 한다. 민주적이란 말은 민주주의 생활양식에 철저하다는 말이다. 민주생활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뿐 아니라 일상적인 사고 자체가 민주적이어야 한다. 교사는 가르치는 자이므로, 가르치는 자는 말로써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학생들의 행동변화를 추구해야 하므로, 일차적으로 민주시민을 양성해야 하는 교사는 자신부터 민주시민의 자질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제일 중요한 요건은 인간의 존엄성을 굳게 믿고 인간을 사랑하는 일이다. 모든 사람의 존재가치를 인정하여 인간을 근원적으로 존중·사랑하는 인간애의 발휘 없이 민주시민의 자격을 운운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다섯째, 교사는 깊은 이해심과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교사

는 필연적으로 어떤 복잡한 인간관계의 망속에 들어가게 된다. 교사는 학생들을 사랑과 이해, 친절과 따뜻함으로 대해야한다. 받는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을, 한없이 베푸는 사랑을 해야 한다. 똑똑한 학생들을 칭찬하는 대신 지진아·문제아에 대한 동정과 책임감이 교사가 갖추어야 할 성품이며, 성서에서 말한 대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와 같은 성품을 지녀야 한다.

여섯째, 도덕적 윤리규범의 준수에 철저해야 한다.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병리현상의 하나는 도덕적 타락현상이다. 인간이 감정이나 맹목적인 의지, 심층적 충동에 지배·조종된다면 타락의 늪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교사가 윤리규범에 철저하자면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적인 수련을 쌓아야 한다. 참다운 삶의 가치가 무엇이며, 삶의 장에 있어서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명백히 함으로써 자신이 한 인간으로서 걸어야 할 길을 올바르게 추구할 수 있으며, 그것은 근원적으로 윤리규범을 신념체계 속에 지켜 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나. 전문가로서의 자질

일반적으로 교직을 전문직으로 칭하는데 합의점을 찾고 있다. 1966년 유네스코와 세계노동기구(ILO)가 공동으로 작성 발표한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에서 기본원칙의 하나로 교직의 전문성을 다루고 있다. 이에 의하면 교사직은 엄격하고도 계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습득 유지되는 전문적 지식과 전문화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공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이기 때문에 전문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모든 직업의 가치가 동일하지만 굳이 전문직이라 칭할 때는 그 분야의 전문성 정도와 특성에 따라 나눈다. 여러 학자들의 전문직 판별기준에 의하면 교직은 전문직의 특성을 가진 직업으로 분류가 된다. 따라서 교직이 전문직이라면 교사는 전문가적인 자질을 갖추으로써 전문적인 소임을 다할 수 있다.

첫째, 교사는 머리로 일하고 스스로 일감을 찾아서 해야 한다. 교직은 수족보다는 머리를 더 쓰도록 되어 있고, 또 하여야 할 일을 자신이 찾아서 하는 직종이다. 그러므로 교직은 최대의 자율성이 보장된 직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율성 속에는 책임이 뒤따른다. 따라서 교사는 잘 가르치기 위해서 배움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하며, 자신이 가르쳐야 할 전문과목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깊이있게 알아야 한다.

둘째, 교사는 새로운 교육의 혁신사상을 몸소 익히고,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흔히 교사는 배운 대로 가르친다는 말이 있다. 이 배운다는 것은 학문이나 지식을 통해서라기보다는 경험이 크게 작용한다는 말이다. 처음에는 새로운 교육방법을 실천해보려고 노력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타성에 젖는 경우가 많다.

물론 교직의 특성상 무조건적의 혁신성이 요구될 수는 없다. 교육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교육방법을 선불리 실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교육의 방법이 예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없다는 비판적 자세도 무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전문직으로서의 교사에게는 미래 지향적이고 동시에 현실성을 감안하여야 한다는 양극단의 상황을 조화있게 타개하여 가는 열의와 기교가 요구된다.

셋째, 교사는 전인적인 인격형성을 교육의 최대 목표로 삼아야 한다. 교사의 한마디 말이 어떤 학생에게는 일생을 좌우할 만큼 큰 의미를 갖게 되기도 하며, 반대로 어떤 학생들에게는 일생에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한다.

이 이야기의 의미는 교사의 말 한마디조차 이렇게 학생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는데, 교사의 모든 말과 행동, 인격 등의 전인적인 모습이 얼마나 학생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는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다. 전문적인 교사는 인간을 다루는 특출한 기교를 끊임없이 터득하고 이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 Ginott은 새로운 학생과 교사의 인간관계에 대한 기교를 풀이하여 말하기를 “말보다는 감정이, 일방적인 지시보다는 상호소통이, 심층적인 분석보다는 형상적이고 상황에 대한 솔직한 표현이 교사가 필요로 하는 바람직한 기교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교사에게 요구되는 ‘인간

다운 인간'을 만드는 기교는 의사소통의 기교가 크게 작용하므로 교사는 의사소통에 대한 전문적 탐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교사는 전문적인 능력이 있어야 한다. 어느 직업이나 그 직업에 대한 고유의 지식이 전제되기 마련이지만 교사에게 지식은 특별한 의미를 띠고 있다. 교사는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 자체를 학생들에게 전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 급별에 따라 알맞은 교과목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준비하여야 한다.

다. 지도자로서의 자질

교사는 교육하는 위치에 따라 학급이나 전교생을 상대로 지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때가 있고, 때에 따라서 지역사회나 학부모를 향해 지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지도성은 기관의 장이나 학교 경영자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구보다도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가 갖추어야 할 필수적 자질이라고 할 수 있다.

White와 Lippit는 지도성에는 민주적(democratic), 전제적(authoritarian), 방임적(laissez faire)인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하였다. 이 가운데 교사에게 요구되는 지도성은 민주적 지도성이다. 민주적 지도성은 모든 일을 구성원의 참여를 통하여 결정하고 지도자는 감독자로서가 아니라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하나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성원들은 창의적이고 자발적이며 집단정신과 상호간의 결속을 가져온다.

따라서 교사는 교육하는 행위 속에 민주적인 지도성이 발휘되어야 하며, 학생들은 이와 같은 교사의 지도성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세를 길러야 한다.

첫째, 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개인 또는 그 집단에 잠재적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능

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상황을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교사집단의 목표설정에 충분한 조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교사는 학생들의 개성을 존중해 주면서 의견의 일치를 도모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면서 집단의 의사가 통일될 수 있는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일은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역량이다.

넷째, 교사는 학생들을 믿어야 한다. 학생들 개개인에 대한 깊은 믿음을 토대로 집단의 목표성취를 위해 그들이 자신이 지닌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일시적인 인정이 아닌 전인격에 대한 전폭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이 밖에도 교사는 학문적 깊이와 일에 대한 열정, 원만한 대인관계, 인간애, 유머감각 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도자적인 자질을 갖추는데 있어서는 먼저 자신에게 그러한 자질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개발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부족한 면을 보완해가야 할 것이다.³¹⁾

라. 개인적 특성

개인적 특성이란 본 연구에서는 논의하고자 하는 교사의 기본적 자질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심진구(1987)는 교사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질을 추출하였는데 교사의 인격적 특성, 사회적 특성, 일반적 교양, 교직적 태도, 교직적 지식·기능, 전문적 지식·기능, 정신적 기능과 더불어 건강과 신체적 특성 및 기능 등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장석우(1990)는 훌륭한 교사의 조건으로 능력 면에서는 우수한 일반 능력, 교과 전문성, 교수 기술 및 업무처리 능력, 태도 및 가치관 면에서는 건전한 자아개념 및 인생관, 인간관 및 학생관, 교직원 및 교직적 사명감, 인성 및 인품 면에서는 예절 및 교양, 성격적 특성 및 인품, 생활 및 활동

31) 김기태, 조평호, 미래지향적 교사론(서울: 교육과학사, 2004), pp.65-70.

의 행적 등이 바람직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최성락(1997)은 교사의 사회 모범으로서의 자질로 고상한 인격을 가지고,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며, 청렴, 결백, 검소, 순수, 정직, 친절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하고, 단정한 용모와 복장에 예절바른 언어, 행동을 하여야 한다. 완전한 인간은 없으며, 이러한 특성들을 모두 실현하고 있는 사람도 극히 드물 것이다. 그렇지만 교사는 최소한 다른 사람에 비해 비교적 우위에 서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박용현(재인용, 기순신, 2001)은 교사자질 평정척을 개발하였는데 교사 기능의 퍼스넬리티적 측면에서 학습자의 인성적 특성을 유머, 비판에 대한 반응, 상식, 안전감과 자신감, 창의성, 건강, 외모, 도덕성, 인품, 사회성 등을 들고 있다.

김정자(재인용, 기순신, 2001)는 바람직한 교사의 자질에 대하여 서술하면서 인성 영역과 용모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교사의 개인적 특성을 한 마디로 무엇이라 정의할 수 없다. 여러 학자들의 논의를 정리하여 볼 때 교사의 개인적 특성을 성격, 용모, 언어, 가치관 등의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사의 개인적 특성은 학생들로 하여금 교사에 대한 믿음과 모방의 대상으로 교육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볼 때 교사의 자질은 교사의 정서활동을 포함한 인간적인 자질, 전문직 종사자로 전문가로서의 자질,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를 향해 지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자질, 그리고 기본적인 자질로서 개인적 특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4. 바람직한 교사

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교사

오늘날의 사회의 변화와 과열경쟁으로 메마른 학교에서 방황하는 학생들에게 진정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교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사회가 물질문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릴수록 인간의 본성을 계발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진정한 가르침의 교사가 더욱 요망된다. 이런 점에서 앞에서 언급한 교사의 역할과 자질에 근거하여 희망적인 미래를 위해 사람을 가르치는 바람직한 교사의 모습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김정일(2000)은 바람직한 교사의 모습을 여섯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³²⁾

첫째, 사랑을 나누는 선생님이다. 교육은 형식과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과 과정이 중요하다. 형식과 결과를 위해서는 가르쳐야 할 지식을 열심히 학생들에게 전달하면 된다. 하지만 가르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지식의 전달이라는 형식에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을 의미한다. 지식에 내용을 담는 그릇이 사랑이다. 학생을 아끼고 바르게 지도하고 싶은 마음, 교사의 철학과 사상, 인생관, 학생에게 꼭 해 주고 싶은 이야기는 형식에 담겨지는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은 사랑이라는 그릇에 담지 않으면 학생에게 전달되기 전에 없어지거나 전달되더라도 금방 잊혀진다.

둘째, 행함으로써 가르치는 선생님이다. 인격적인 가르침은 말로서는 불가능하다.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서 설득할 수 있다. 그러나 성실하게 살라고 논리적인 설명을 하는 선생님이 불성실한 삶을 사는 사람이면 학생들에게 그 의미가 전달되지 않는다. 진정한 가르침은 먼저 보여 주고 행함으로써 가능하다.

셋째, 좋은 점을 예언하는 선생님이다. 가르침의 현장에서 자기충족적 예언이론이 갖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는 교사의 예언적 자세에 따라 정반대의 효과로 나타난다. 교사가 학습자에게 어떤 예언을 하느냐에 따라 한 인간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넷째, 향기가 풍겨하는 선생님이다. 고매한 인격과 바르고 건강한 교직관, 원만한 성품, 밝고 유머있는 자세, 뛰어난 학식, 고상한 취미 등이 어우러져 나는 향기는 학생들에게 신선한 자극과 유익한 표본이 된다.

32) 김정일 외, 전개서(서울: 학지사, 2000), pp.308-319.

다섯째, 학생의 편에서 생각하는 선생님이다. 선생님과 학생의 생각은 다르다. 학생의 편에서 생각하면 학생의 의도와 행동이 이해될 수 있다. 학생을 이해하지 않고 가르치는 선생님은 엄밀하게 말하면 잘못 가르치거나 가르치지 않은 것이다.

여섯째, 칭찬을 아끼지 않는 선생님이다. 선생님은 심리학적인 보상의 법칙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항상 학생들의 잘한 점만을 찾아서 칭찬거리를 만들어가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 선생님이야말로 학생들의 긍정적 자아를 일깨워 주고 실패에 대한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는 선생님이다.

류동훈(2004)은 바람직한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조건을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³³⁾

첫째, 교사는 학생들을 근본적으로 사랑하는 훌륭한 인격자이어야 한다. 교사가 되려는 사람은 학생들에 대한 이해가 깊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인격자이어야 한다.

둘째, 교사는 전문적 지식을 갖춘 실력자이어야 한다. 교사는 다양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추어야 하며,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학생들을 보다 더 잘 가르치기 위해 전문성 신장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교사는 열의 있게 업무를 추진하는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이 교사의 주된 임무임에는 변함이 없으나 사회가 발전하고 정보가 홍수처럼 밀려오는 오늘날의 시대를 살아가는 교사에게는 사회발전의 촉진자로서 사회제도적인 역할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넷째, 교사는 부모와 같은 깊고 넓은 사랑을 지녀야 한다. 교사는 학급의 학생들을 내 자녀라고 생각하고 지도에 임한다면 교육의 효과는 엄청나게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최선을 다하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부모처럼 우리 교사도 그와 같은 마음 자세로 교육을 한다면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 질 것이다.

결국 바람직한 교사는 아동을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 인식하고 사

33) 류동훈, 전계서(서울: 창지사, 2004), pp.87-89.

량과 열정을 가지고 지도에 임하며, 현대사회 및 교과에 대하여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바른 인격과 심신이 건강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나. 학생이 기대하는 교사

Jersild(1942)는 초등학교 학생을 저학년(1, 2, 3)과 고학년(4, 5, 6)으로 나누어 좋아하는 교사의 특성을 선택하도록 17개 항목으로 제시하였는데 그 결과 저학년의 경우 같이 놀아준다, 재미있는 계획이나 실험을 해준다, 나를 좋아하고 칭찬해 준다, 무리한 공부를 시키지 않는다, 친절하고 잘 돌봐준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학년의 경우 잘 가르쳐 준다, 친절하고 잘 돌봐준다, 나를 좋아하고 칭찬해 준다, 공명정대하다, 재미있는 계획이나 실험을 해준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강은희(2001)는 초등학교 학생·학부모가 바라는 바람직한 담임 교사상에서 학생들은 개인적 특성면에서 유모가 풍부한 성격으로 학생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교사, 학습지도면에서는 단순 지식 전달보다는 참된 인간이 되도록 지도하는 교사, 스스로 학습하게 하고 학습을 도와주는 교사, 생활지도면에서는 편애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하는 교사, 잘못을 하였을 때 벌보다는 개별적으로 타이르고 설득하는 교사, 학급경영면에서는 교우관계 및 협동생활과 소질개발 및 특기지도에 힘써 주는 교사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고재길(2002)은 바람직한 초등학교 교사상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비교에서 학생들과 잘 어울리는 교사, 쉽게 이해되도록 지도하는 교사, 인간의 도리를 알도록 하는 교사,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고 권하는 교사,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남모르게 조용히 지도하는 교사, 학급경영에서 학생과 의논해서 일을 처리하는 교사, 재량·특별활동 지도에서는 자신들이 희망하는 영역을 지도해 주는 교사, 인간관계 면에서는 친절하고 부드러운 교사, 편애 없이 공정하게 대하는 교사, 교사의 자질에 대해서는 풍부한 지식과 경험으로 이야기해주는 교사, 학생 개개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교사,

교사의 특성에 대하여는 교과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가르치는 교사를 학생들이 좋아한다고 하였다.

결국 학생들은 공정하게 대해 주고, 자신들에게 관심을 가져 주는 교사, 별이나 꾸중이 아닌 말로써 바른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주며, 학생들의 마음을 잘 이해해 주는 교사를 기대하고 있다.

다. 학부모가 기대하는 교사

류묘희(2001)는 초등학교 담임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연구에서 학부모는 도덕적 인격의 인성 좋은 교사, 기본예절 교육과 개성을 인정한 창의성 교육을 하는 교사, 생활지도에서는 아동을 이해하면서 동기부여를 통한 행동 수정으로 이끄는 교사, 교육활동에서는 수시로 평가하고 평가 후 학부모와 성적에 대한 분석과 사후 지도를 해주는 교사, 학습과제는 적당량을 제시하는 교사를 선호한다고 하였다.

이영숙(2003)은 초등학교 학부모가 기대하는 학급담임교사의 역할 수행에 관한 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첫째, 학부모가 기대하는 담임교사의 일반적 역할에 대해서는 품위있는 교사, 성실한 태도와 책임감이 있는 교사, 문학분야에 소질이 있는 교사를 가장 선호하였다.

둘째, 학습지도자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자기 주도적 학습을 시키는 교사, 과제는 계획을 세워 적당히 제시하는 교사, 학습태도 및 방법을 잘 지도해 주는 교사, 평가 후 격려를 해 주는 교사를 선호하였다.

셋째, 생활지도자로서의 역할에서는 생활지도는 아동과 대화를 통해 하는 교사, 잘못을 하였을 때는 개별 지도를 해 주는 교사, 체벌은 경우에 따라 적절히 사용하는 교사, 일기는 잘한 점과 잘못된 점만을 지적하는 것으로 지도하는 교사, 급식 지도는 영양을 고려하여 규정된 양을 먹게하는 교사를 선호하였다.

김기환(2004)은 초등학교 학부모가 기대하는 담임교사상에 관한 연구에

서 학부모가 기대하는 교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투철한 교육관을 지닌 교사, 성품이 온화하고 친절하며 자상한 교사, 사랑과 친절의 덕목을 지닌 교사, 교육적 애정이 풍부한 성격의 교사

둘째, 학습지도면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많이 해 주는 학생중심이 되는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 아침자습 시간에 독서지도와 취미활동을 하게 하는 교사, 과제량을 알맞게 제시해 주는 교사, 체벌이나 방관보다는 청소를 시키거나 방과후 지도해 주는 교사

셋째, 생활지도면에서는 인성을 중시하고 훈화를 통해 올바른 사람이 되도록 지도해 주는 교사, 학생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학부모와 전화 면담이나 봉사활동을 통해 개별 지도를 하는 교사, 상담시 성격문제나 진로문제를 중심으로 상담해 주는 교사

넷째, 편애하지 않고 항상 공평하게 대해 주는 태도를 지닌 교사, 학급회의를 통해 학급을 경영하는 교사, 예절 및 기본생활 습관을 잘 지도해 주는 교사, 부모님처럼 자상하고 사랑으로 이끌어 가는 교사

이상의 내용을 살펴 볼 때 학부모가 기대하는 교사는 투철한 교육관과 책임감을 강한 교사, 바른 인품을 가지고 학생들을 관심과 사랑으로 지도해 주는 교사임을 알 수 있다.

5. 선행연구 고찰

바람직한 교사상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구되어질 문제일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변화에 따른 학생, 학부모의 인식 변화로 인해 교사에 대한 기대가 변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시대에 따른 바람직한 교사상을 정립하여 교사들에게 모범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교사들의 행동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대가 요청하는 바람직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교사상에 관한 연구는 참으로 중요하다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 참고하기 위하여 관련된 선행 연구물들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고

잘해보고자 한다.

김용달(2000)은 “초등교사의 역할에 대한 교사·학생·학부모의 인식에 관한 연구”에서 첫째, 인간 관계면에 대해 교사들은 공평하게 대해 주는 교사, 친절하고 부드럽게 대해주는 교사순으로 응답하였고, 학생들은 친절하고 부드럽게 대해주는 교사, 공평하게 대해주는 교사순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학부모들은 공평하게 대해 주는 교사, 친절하고 부드럽게 대해주는 교사순으로 응답하였다. 교사와 학부모간 만남의 방법에 대해서는 학생·학부모는 가정 통신문을 사용하여 연락하는 것을 선호하였고, 교사는 전화 연락을 가장 선호하였다. 둘째, 생활지도면에서 인성지도에 대한 교사·학생·학부모 모두 인간의 도리를 알도록 지도하는 교사를 가장 선호하였다. 그리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모두 개별적으로 지도하는 교사를 가장 선호하였다. 셋째, 학습지도면에 대한 영역에서 수업 방식에 대하여 교사·학생·학부모 모두 쉽게 이해하도록 지도하는 교사를 가장 많이 선호하였으며, 성적 처리에 관하여 교사·학생은 개별로 알려 주는 교사를 선호하였으며, 학부모 집단은 부모님께 통지하는 교사를 지지하였다. 넷째, 학급경영면에서 학급 운영에 대해 세 집단 모두 학생과 의논해서 처리하는 교사에 가장 많이 응답했다. 다섯째, 특별활동 지도면에 대하여 특별활동 시간 지도 내용은 모두 특기 및 소질 계발을 위해 지도하는 교사에게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취미활동을 지도하는 교사를 지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장혜정(2002)은 “교사·학부모·학생이 기대하는 초등학교 교사상”에서 첫째, 일반적 자질면에서 본 초등학교 교사상에 대하여 교사와 학부모는 담임교사가 사랑과 의욕을 가지고 단정한 모습으로 아동을 존중하면서 대하기를 기대하였으며 또 공정한 태도로 자주 화를 내지 않아야 하고 예체능에 소질이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나 학생은 담임교사가 차분한 모습으로 재미있고 친숙하게 사랑을 가지고 대해주기를 기대하였으며 컴퓨터에 소질이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둘째, 학습지도면에서 교사는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아동이 직접 참여하는 학습과 독서지도를 기대하면서 필요한 과제만 제시하는 것을 선호하였고, 학부모는 아동이 직접 골고루 학습

에 참여하고 매일 적당한 과제와 독서 후 지도에 기대를 하였다. 학생은 직접 참여하며 자세하고 재미있는 학습을 기대하면서 매일 적당한 과제와 자유롭게 독서하기를 선호하였다. 셋째, 생활지도면에서 모두 정직하고 바른 마음, 우애와 효도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기를 선호하였다. 체벌은 교사·학부모·학생 모두 경우에 따라 약간의 체벌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넷째, 학급경영면에서 교사와 학부모는 대화를 통해 아동을 이해하기를 기대하면서 교사의 엄격함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나, 학생은 자주 대화하고 다정하게 대해주기를 기대하면서 교우관계 지도에 관심을 보였다. 또한 일기지도의 경우 학생은 2~3일에 한번씩 쓰도록 하는 방법을 선호하였고, 학부모는 매일 매일 꼭 쓰도록 하는 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급 경영 방침으로는 교사와 학부모는 예절 및 기본 생활 습관 지도에 중점을 두기를 바라고 있고, 학생은 친구 관계 및 협동생활에 중점을 두기를 바라고 있었다. 좌석배치 방법은 교사와 학부모는 아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앉게 하는 방법을 선호하였고, 학생은 희망하는 짝끼리 앉게 하는 방법을 선호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임영선(2004)은 “교사의 역할에 대한 초등학생의 학년별 기대 차이”에서 첫째, 교사의 개인적 특성면에서 볼 때 사랑을 실천하고 깨끗하고 단정한 옷차림이 수반되는 교사상을 기대하고 있으며, 둘째, 학습지도 측면에서는 과제나 성적보다는 자율적으로 학습하고 성적과 인간성을 동시에 중시하는 교사를 선호하였다. 셋째, 생활지도 측면에서는 무엇보다도 아동들의 자율성과 학생 위주의 생활지도를 생각하는 교사를 기대하며, 넷째, 학급경영 측면에서는 저학년은 자상하게 일일이 챙겨주는 교사를 중학년과 고학년은 친구들끼리 자율적인 활동을 하도록 해주는 교사를 원하고 있었다. 다섯째, 인간관계 측면에서 선생님과 대화 내용으로 저학년은 성적에 관한 내용, 중학년과 고학년은 취미나 소질에 관한 내용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류선희(2004)는 “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가 기대하는 교사상에 대한 비교 분석”에서 첫째, 학습지도 면에서 교과서를 통한 단편적인 지식의 습득

보다는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얻으며,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실험과 실습이나 체험 학습의 기회를 주고 학생들을 능동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으며, 둘째, 생활지도 면에서 학생 개개인에게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상담 지도로 고민을 해결하고 학습에서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기를 기대하였다. 학생과 상담을 할 때 학생 집단은 친구 관계에 관한 문제를 선호했고, 학부모 집단은 장래희망에 관한 문제를 가장 선호하였다. 셋째, 학급경영 면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수용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이유를 이해시키는 선생님을 선호하였다. 아침 자습은 학생의 경우 스스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선생님을 선호하였고, 학부모의 경우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선생님을 선호하였다. 일기 지도는 학생의 경우 쓰고 싶을 때 쓰도록 자율에 맡기는 것을 선호하였고, 학부모는 2~3일에 한번 정도 쓰도록 지도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자리 배치 방법으로 학생 집단은 자유롭게 앉기를 바랐고, 학부모 집단은 주기적으로 자리를 바꾸어 주는 것을 바랐다. 넷째, 개인적 특성 면에서는 형, 누나, 언니, 오빠처럼 친근함과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사랑으로 지도하는 교사를 기대하고 있다. 다섯째, 사회성 면에서는 편하고 친근하게 사랑을 키워나가는 선생님을 기대하고 있다. 교사의 언어는 학부모 집단의 경우 주로 경어를 사용하지만 개인적으로 평어를 사용하는 선생님을 선호하였고, 학생 집단은 항상 평어만 사용하는 선생님을 선호하고 있다. 교사의 옷차림은 학생들과 편하게 활동할 수 있는 캐주얼 차림의 선생님이라고 응답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강유진(2005)은 “바람직한 초등학교 교사상에 대한 교육 관련 집단들의 인식 비교”에서 첫째, 학교행정가들이 인식하고 있는 바람직한 초등학교 교사상은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안내해 주는 교사, 학생의 성적, 건강, 취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상담할 수 있는 교사, 학년 초에 학생과 함께 학급에서 지켜야할 규칙을 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강조하는 교사 등이고, 둘째, 교사들이 인식하는 바람직한 교사상은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안

내해 주는 교사, 잘못에 대한 질책보다는 칭찬을 찾아서 해주는 교사, 학급 운영에 있어서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분위기를 주는 교사로 인식하고 있으며, 셋째, 학부모들은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안내해 주는 교사, 잘못에 대한 질책보다는 칭찬을 찾아서 해주는 교사, 학급 일을 결정할 때 학생의 의견을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교사를 바람직한 교사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넷째, 학생들은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안내해 주는 교사, 명랑하고 질서를 존중하는 생활을 강조하는 교사, 학급 일을 결정할 때 학생의 의견을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교사를 바람직한 선생님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바람직한 교사상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선행연구자들은 대체적으로 교사의 개인적 자질 측면, 학습지도 측면, 학급경영 측면, 생활지도 측면 등으로 구분하여 그 특성을 밝히려고 노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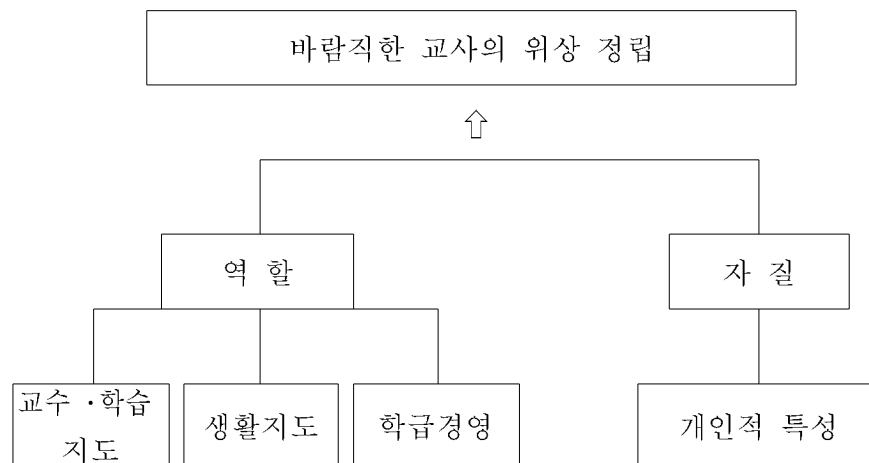
Ⅲ. 분석모형 및 조사설계

1. 분석모형 정립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교사의 역할과 자질에 대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기대하는 인식을 알아보는 데 있다. <그림Ⅲ-1>과 같이 교사의 역할은 교수-학습지도면, 생활지도면, 학급경영면으로 나누었으며, 교사의 자질은 개인적 특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교사의 역할의 경우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교수·학습지도와 생활지도 그리고 앞의 두 영역을 수행하는데 밑바탕이 되는 학급경영면에서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교사의 자질은 대부분 교사의 역할 수행과 무관하지 않으며 바람직한 역할 수행을 하는 교사의 자질과 유사할 것으로 간주되어 역할 측면과 다소 다른 영역인 개인적 특성에 대해서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을 알아봄으로써 바람직한 교사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그림Ⅲ-1> 초등학교 교사의 역할과 자질에 대한 인식분석 모형

2. 조사설계

가. 조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초등학교 6개교 5·6학년 학생 300명과 학부모 300명, 총 600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설문 기간은 2006년 4월 5일부터 4월 19일까지 2주간 실시하였다. 배부된 설문지의 회수율은 학생 295명(98.3%)과 학부모 263명(87.7%)이었다.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 5·6학년과 학부모를 조사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초등학교 전 학년 중에서 가장 성숙된 상급학년 집단으로 학교생활에서 여러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지도를 받으면서 개별적으로 교사에 대한 관점을 형성하여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의 학부모들도 여러 명의 담임교사를 경험해 봄으로써 교사에 대해 기대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선정하였다.

나. 조사 도구 및 내용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하여 교사의 역할과 자질에 대한 이해와 실증연구를 고찰하였고, 초등학교 교사의 역할과 자질에 관련된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자문을 받아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본 설문지의 문항별 평가영역 및 요소는 <표Ⅲ-1>과 같다.

<표Ⅲ-1> 설문지 영역별 문항 구성 내용

| 영역 | | 요소 | 문항수 |
|----|-------------|---|--------------------------------------|
| 역할 | 교수·학습 지도 | 학습 지도 방법 숙제(과제) 지도 방법 독서 지도 방법 평가 처리 방법 교육 목적 발표 시키는 방법 아침 자습 지도 방법 일기 지도 방법 | 1 1 1 1 1 1 1 2 |
| | 생활지도 | 지향해야 할 인간상 체벌 급식 지도 방법 학생에 대한 태도 잘못된 행동의 지도 방법 상담 | 1 1 1 1 1 1 |
| | 학급경영 | 학급 경영 방침 학생과의 인간관계 자리 배치 방법 학부모와의 대화 방법 교우간의 갈등 해소 방법(싸움) 학급 임원 선출 방법 | 1 1 1 1 1 1 |
| 자질 | 개인적 특성 | 교사의 성격 언어 사용 옷차림 가장 중요한 교사의 특성 | 1 1 1 1 |
| 계 | | | 25 |

3. 자료처리

본 연구의 설문 결과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첫째,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학생·학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바람직한 초등학교 교사의 역할과 자질에 대한 인식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 χ^2 을 실시하였다.

셋째,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모두 유의수준 $p<.05$, $p<.01$, $p<.001$ 에서 검증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IV. 조사 결과 분석 및 논의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및 분포상황은 <표IV-1>과 같다.

<표IV-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구 분 | | 빈 도 | 퍼센트 |
|----------|--------|-----|-------|
| 대상별 | 학 생 | 295 | 52.9 |
| | 학부모 | 263 | 47.1 |
| 성 별 | 남 | 224 | 40.1 |
| | 여 | 334 | 59.9 |
| 지 역 | 시 지역 | 280 | 50.2 |
| | 읍·면 지역 | 278 | 49.8 |
| 학 년(학생) | 5학년 | 149 | 50.5 |
| | 6학년 | 146 | 49.5 |
| 연령별(학부모) | 20대 | 5 | 1.9 |
| | 30대 | 91 | 34.6 |
| | 40대 | 155 | 58.9 |
| | 50대 | 12 | 4.6 |
| 합 계 | | 558 | 100.0 |

<표IV-1>과 같이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대상별로는 학생이 52.9%, 학부모가 47.1%이었으며, 성별로는 남자가 40.1%, 여자가 59.9%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시 지역이 50.2%, 읍·면 지역이 49.8%이었고, 학년별로는 5학년이 50.5%, 6학년이 49.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가 58.9%,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34.6%, 50대가 4.6%, 20대가 1.9%,로 나타났다. 특히 학년별, 연령별 표집수가 각각 295명, 263명인 것은 학년별은 학생을, 연령별은 학부모를 분석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2. 분석 결과

가. 교수·학습지도에 대한 인식

(1) 학습지도방법 선호도에 대한 인식

<표Ⅳ-2>에 의하면 전체적으로는 약 43.4%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생들이 재미있게 수업을 하게 해주는 선생님을 가장 선호하였고, 다양한 예를 들어가며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선생님(27.1%)과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해결하도록 이끄는 선생님(16.5%)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별($\chi^2=142.006$, $df=4$, $p<.001$)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성별($\chi^2=8.684$, $df=4$, $p>.05$)과 지역별($\chi^2=1.450$, $df=4$, $p>.05$), 학년별($\chi^2=2.923$, $df=4$, $p>.05$) 그리고 연령별($\chi^2=14.128$, $df=12$, $p>.05$)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표Ⅳ-2> 학습 지도 방법 선호도

| | | 사례수(%) | | | | | | χ^2 df p |
|-----|-------|--------------------------------|-----------------------------------|---------------------------------|---------------------------|---------|------------|--------------------------|
| 구 분 | | 스스로생각하고 해결하도록 이끄는 선생님 | 예를 들어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선생님 | 재미있게 수업을 하게 해주는 선생님 | 요점을 잘 지도해 주는 선생님 | 기타 | 전체 | |
| 대상별 | 학생 | 19(6.4) | 42(14.2) | 189(64.1) | 37(12.5) | 8(2.7) | 295(100.0) | 142.006 4 .000 *** |
| | 학부모 | 73(27.8) | 109(41.4) | 53(20.2) | 26(9.9) | 2(8) | 263(100.0) | |
| 성별 | 남 | 36(16.1) | 50(22.3) | 113(50.4) | 21(9.4) | 4(1.8) | 224(100.0) | 8.684 4 .070 |
| | 여 | 56(16.8) | 101(30.2) | 129(38.6) | 42(12.6) | 6(1.8) | 334(100.0) | |
| 지역 | 시지역 | 44(15.7) | 81(28.9) | 119(42.5) | 32(11.4) | 4(1.4) | 280(100.0) | 1.450 4 .835 |
| | 읍·면지역 | 48(17.3) | 70(25.2) | 123(44.2) | 31(11.2) | 6(2.2) | 278(100.0) | |
| 학년 | 5학년 | 7(4.7) | 21(14.1) | 101(67.8) | 17(11.4) | 3(2.0) | 149(100.0) | 2.923 4 .571 |
| | 6학년 | 12(8.2) | 21(14.4) | 88(60.3) | 20(13.7) | 5(3.4) | 146(100.0) | |
| 연령별 | 20대 | 1(20.0) | 2(40.0) | 1(20.0) | 1(20.0) | 0(0) | 5(100.0) | 14.128 12 .293 |
| | 30대 | 19(20.9) | 43(47.3) | 23(25.3) | 6(6.6) | 0(0) | 91(100.0) | |
| | 40대 | 48(31.0) | 63(40.6) | 25(16.1) | 17(11.0) | 2(1.3) | 155(100.0) | |
| | 50대 | 5(41.7) | 1(8.3) | 4(33.3) | 2(16.7) | 0(0) | 12(100.0) | |
| 전체 | | 12(16.5) | 151(27.1) | 242(43.4) | 63(11.3) | 10(1.8) | 558(100.0) | |

*** p<.001

대상별의 경우 학생(64.1%)은 재미있게 수업을 해주는 선생님을 선호하는 반면에 학부모(41.4%)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선생님을 원하고 있어서 서로 다르게 인식하였다. 이러한 반응 결과는 학생들은 학습활동에서 흥미를 중요시하고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이해를 더 중요시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 과제 제시 방법 선호유형

<표Ⅳ-3>과 같이 과제 제시 방법 선호유형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33.9%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생들이 일주일에 2~3번 정도 과제를 내주는 선생님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매일 적당히 내주는 선생님(31.7%)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별($\chi^2=58.325$, $df=4$, $p<.001$)과 지역별($\chi^2=11.512$, $df=4$, $p<.05$)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성별($\chi^2=9.147$, $df=4$, $p>.05$)과 학년별($\chi^2=5.321$, $df=4$, $p>.05$) 그리고 연령별($\chi^2=4.488$, $df=12$, $p>.05$)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대상별의 경우 학생(44.4%)은 일주일에 2~3번 정도 내주는 선생님을 선호하는 반면에 학부모(34.6%)는 학습 지도상 가정 학습을 필요로 하는 것에 한해서만 과제를 내주는 선생님을 선호하고 있어서 서로 다르게 인식하였다. 지역별로는 시지역(30.0%)은 매일 적당히 내주는 선생님과 일주일에 2~3번 내주는 선생님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읍·면지역(37.8%)은 일주일에 2~3번 정도 내주는 선생님을 가장 선호하였다.

이러한 반응 결과는 학부모들의 경우 과제가 학생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과제를 제시할 때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학생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Ⅳ-3> 과제 제시 방법 선호유형

사례수(%)

| 구 분 | | 매일 적당히 | 가정학습 을 필요로 할 경우 | 과제를 내주지 않음 | 일주일 에 2-3번 | 기타 | 전체 | χ^2 df p |
|-----|-------|-----------|--------------------------|------------------|------------------|--------|------------|-------------------------|
| 대상별 | 학생 | 87(29.5) | 34(11.5) | 41(13.9) | 131(44.4) | 2(7) | 295(100.0) | 58.325 4 .000 *** |
| | 학부모 | 90(34.2) | 91(34.6) | 22(8.4) | 58(22.1) | 2(8) | 263(100.0) | |
| 성별 | 남 | 68(30.4) | 39(17.4) | 29(12.9) | 85(37.9) | 3(1.3) | 224(100.0) | 9.147 4 .058 |
| | 여 | 109(32.6) | 86(25.7) | 34(10.2) | 104(10.2) | 1(3) | 334(100.0) | |
| 지역 | 시지역 | 84(30.0) | 79(28.2) | 31(11.1) | 84(30.0) | 2(7) | 280(100.0) | 11.512 4 .021 * |
| | 읍·면지역 | 93(33.5) | 46(16.5) | 32(11.5) | 105(37.8) | 2(7) | 278(100.0) | |
| 학년 | 5학년 | 43(28.9) | 22(14.8) | 20(13.4) | 62(41.6) | 2(1.3) | 149(100.0) | 5.321 4 .256 |
| | 6학년 | 44(30.1) | 12(8.2) | 21(14.4) | 69(47.3) | 0(0) | 146(100.0) | |
| 연령별 | 20대 | 2(40.0) | 2(40.0) | 0(0) | 1(20.0) | 0(0) | 5(100.0) | 4.488 12 .973 |
| | 30대 | 29(31.9) | 32(35.2) | 10(11.0) | 20(22.0) | 0(0) | 91(100.0) | |
| | 40대 | 53(34.2) | 54(34.8) | 11(7.1) | 35(22.6) | 2(1.3) | 155(100.0) | |
| | 50대 | 6(50.0) | 3(25.0) | 1(8.3) | 2(16.7) | 0(0) | 12(100.0) | |
| 전체 | | 177(31.7) | 125(22.4) | 63(11.3) | 189(33.9) | 4(7) | 558(100.0) | |

* $p < .05$ *** $p < .001$

(3) 독서 지도 선호유형

<표Ⅳ-4>와 같이 독서 지도 방법 선호유형에 대한 전체 응답을 살펴보면 40.7%가 책을 읽고 간단하게 느낀 점을 정리하게 하는 선생님을 선호하였고, 아동 스스로 자유롭게 읽게 하는 선생님(33.6%)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별($\chi^2=167.270$, $df=4$, $p<.001$)과 성별($\chi^2=22.101$, $df=4$, $p<.001$) 그리고 지역별($\chi^2=9.941$, $df=4$, $p<.05$)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학년별($\chi^2=4.274$, $df=4$, $p>.05$)과 연령별($\chi^2=19.444$, $df=12$, $p>.05$)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학생(61.0%), 남자(48.2%), 읍·면지역(41.4%)의 응답에서 아동 스스로 자유롭게 책을 읽게 하는 선생님을 선호하는 반면에 학부모(57.0%), 여자(46.1%), 시지역(42.9%)의 응답에서는 책을 읽고 간단하게 느낀 점을 정리하게 하는 선생님을 선호하고 있어 서로 다르게 인식하였다. 이러한 반응

결과는 남·여 간의 성격적인 문제도 있으나 학생들의 학력에 관심이 더 높은 시지역이나 학부모들은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독서 지도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Ⅳ-4> 독서 지도 선호유형

| | | 사례수(%) | | | | | | X ² df p |
|-----|-------|---------------|--------------------|---------------|-----------------------|--------|------------|---------------------------|
| 구 분 | | 자유롭게 읽게하는 선생님 | 독서량을 정해주고 확인하는 선생님 | 독후감을 쓰게하는 선생님 | 간단하게 느낀점을 정리하게 하는 선생님 | 기타 | 전체 | |
| 대상별 | 학생 | 180(61.0) | 19(6.4) | 15(5.1) | 77(26.1) | 4(1.4) | 295(100.0) | 167.270 4 .000 *** |
| | 학부모 | 24(9.1) | 52(19.8) | 36(13.7) | 150(57.0) | 1(.4) | 263(100.0) | |
| 성별 | 남 | 108(48.2) | 24(10.7) | 17(7.6) | 73(32.6) | 2(.9) | 224(100.0) | 22.101 4 .000 *** |
| | 여 | 96(28.7) | 47(14.1) | 34(10.2) | 154(46.1) | 3(.9) | 334(100.0) | |
| 지역 | 시지역 | 89(31.8) | 44(15.7) | 26(9.3) | 120(42.9) | 1(.4) | 280(100.0) | 9.941 4 .041 * |
| | 읍·면지역 | 115(41.4) | 27(9.7) | 25(9.0) | 107(38.5) | 4(1.4) | 278(100.0) | |
| 학년 | 5학년 | 96(64.4) | 6(4.0) | 9(6.0) | 36(24.2) | 2(1.3) | 149(100.0) | 4.274 4 .370 |
| | 6학년 | 84(57.5) | 13(8.9) | 6(4.1) | 41(28.1) | 2(1.4) | 146(100.0) | |
| 연령별 | 20대 | 0(.0) | 1(20.0) | 1(20.0) | 3(60.0) | 0(.0) | 5(100.0) | 19.444 12 .078 |
| | 30대 | 9(9.9) | 19(20.9) | 6(6.6) | 57(62.6) | 0(.0) | 91(100.0) | |
| | 40대 | 15(9.7) | 30(19.4) | 23(14.8) | 86(55.5) | 1(.6) | 155(100.0) | |
| | 50대 | 0(.0) | 2(16.7) | 6(50.0) | 4(33.3) | 0(.0) | 12(100.0) | |
| 전체 | | 204(33.6) | 71(12.7) | 51(9.1) | 227(40.7) | 5(.9) | 558(100.0) | |

* p<.05 *** p<.001

(4) 시험평가 후 처리 방법 선호

<표Ⅳ-5>와 같이 시험평가 후 처리 방법에 대한 전체 응답을 살펴보면 41.9%가 학생 개별로 알려 주기를 선호하였고, 부모님께 통지(29.7%)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별($\chi^2=135.728$, $df=4$, $p<.001$)과 성별($\chi^2=17.544$ $df=4$, $p<.01$)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지역별($\chi^2=8.789$ $df=4$, $p>.05$), 학년별($\chi^2=7.567$, $df=4$, $p>.05$), 연령별($\chi^2=13.171$, $df=12$, $p>.05$)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표Ⅳ-5> 시험평가 후 처리방법 선호

사례수(%)

| 구 분 | | 학생 개별로 알려줌 | 알리지않 고지도함 | 학급전체 공개 | 부모님 께 통지 | 기타 | 전체 | X ² df p |
|-----|-------|------------------|--------------|------------|-------------|---------|------------|---------------------------|
| 대상별 | 학생 | 160(54.2) | 73(24.7) | 29(9.8) | 29(9.8) | 4(1.4) | 295(100.0) | 135.728 4 .000 *** |
| | 학부모 | 74(28.1) | 17(6.5) | 29(11.0) | 137(52.1) | 6(2.3) | 263(100.0) | |
| 성별 | 남 | 90(40.2) | 47(21.0) | 32(14.3) | 53(23.7) | 2(.9) | 224(100.0) | 17.544 4 .002 ** |
| | 여 | 144(43.1) | 43(12.9) | 26(7.8) | 113(33.8) | 8(2.4) | 334(100.0) | |
| 지역 | 시지역 | 117(41.8) | 54(19.3) | 22(7.9) | 80(28.6) | 7(2.5) | 280(100.0) | 8.789 4 .067 |
| | 읍·면지역 | 117(42.1) | 36(12.9) | 36(12.9) | 86(30.9) | 3(1.1) | 278(100.0) | |
| 학년 | 5학년 | 75(50.3) | 41(27.5) | 11(7.4) | 20(13.4) | 2(1.3) | 149(100.0) | 7.567 4 .109 |
| | 6학년 | 85(58.2) | 32(21.9) | 18(12.3) | 9(6.2) | 2(1.4) | 146(100.0) | |
| 연령별 | 20대 | 0(.0) | 0(.0) | 0(.0) | 5(100.0) | 0(.0) | 5(100.0) | 13.171 12 .357 |
| | 30대 | 26(28.6) | 5(5.5) | 6(6.6) | 51(56.0) | 3(3.3) | 91(100.0) | |
| | 40대 | 46(29.7) | 10(6.5) | 20(12.9) | 76(49.0) | 3(1.9) | 155(100.0) | |
| | 50대 | 2(16.7) | 2(16.7) | 3(25.0) | 5(41.7) | 0(.0) | 12(100.0) | |
| 전체 | | 234(41.9) | 90(16.1) | 58(10.4) | 166(29.7) | 10(1.8) | 558(100.0) | |

** p<.01 *** p<.001

대상별로 살펴보면 학생(54.2%)은 학생 개별로 알려주는 것을 선호하는 반면에 학부모(52.1%)는 부모님께 통지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어 서로 다르게 인식하였다. 성별의 경우 남자(14.3%)가 여자(7.8%)보다 학급 전체 공개를 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반응 결과는 학생들의 경우 시험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를 생각해서 개별로 알려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학부모들은 자기 자녀의 학업 성취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통지 받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학습을 통한 능력 향상

<표Ⅳ-6>와 같이 학습을 통한 능력 향상에 대한 전체 응답을 살펴보면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이 30.3%로 가장 많았으며, 아동의 특기와 소질(29.6%)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별($\chi^2=22.284$, $df=4$, $p<.001$)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성별($\chi^2=2.381$, $df=4$, $p>.05$), 지역별(χ

$\chi^2=1.623$ $df=4$, $p>.05$), 학년별($\chi^2=3.330$, $df=4$, $p>.05$), 연령별($\chi^2=9.124$, $df=12$, $p>.05$)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표Ⅳ-6> 학습을 통한 능력 향상

사례수(%)

| 구 분 | | 많은 지식습득 | 생각하는 능력 |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 | 아동의 특기와 소질 | 기타 | 전체 | χ^2 df p |
|-----|-------|------------|------------|-------------------|------------------|--------|------------|-------------------------|
| 대상별 | 학생 | 60(20.3) | 58(19.7) | 83(28.1) | 90(30.5) | 4(1.4) | 295(100.0) | 22.284 4 .000 *** |
| | 학부모 | 22(8.4) | 79(30.0) | 86(32.7) | 75(28.5) | 1(.4) | 263(100.0) | |
| 성별 | 남 | 37(16.5) | 52(23.2) | 64(28.6) | 68(30.4) | 3(1.3) | 224(100.0) | 2.381 4 .666 |
| | 여 | 45(13.5) | 85(25.4) | 105(31.4) | 97(29.0) | 2(.6) | 334(100.0) | |
| 지역 | 시지역 | 40(14.3) | 72(25.7) | 88(31.4) | 77(27.5) | 3(1.1) | 280(100.0) | 1.623 4 .805 |
| | 읍·면지역 | 42(15.1) | 65(23.4) | 81(29.1) | 88(31.7) | 2(.7) | 278(100.0) | |
| 학년 | 5학년 | 26(17.4) | 33(22.1) | 42(28.2) | 47(31.5) | 1(.7) | 149(100.0) | 3.330 4 .504 |
| | 6학년 | 34(23.3) | 25(17.1) | 41(28.1) | 43(29.5) | 3(2.1) | 146(100.0) | |
| 연령별 | 20대 | 0(.0) | 2(40.0) | 0(.0) | 3(60.0) | 0(.0) | 5(100.0) | 9.124 12 .692 |
| | 30대 | 7(7.7) | 28(30.8) | 30(33.0) | 25(27.5) | 1(1.1) | 91(100.0) | |
| | 40대 | 15(9.7) | 47(30.3) | 51(32.9) | 42(27.1) | 0(.0) | 155(100.0) | |
| | 50대 | 0(.0) | 2(16.7) | 5(41.7) | 5(41.7) | 0(.0) | 12(100.0) | |
| 전체 | | 82(14.7) | 137(24.6) | 169(30.3) | 165(29.6) | 5(.9) | 558(100.0) | |

*** $p<.001$

대상별로 살펴보면 학생(30.5%)은 학습을 통해 특기와 소질 향상을 선호하는 반면에 학부모(32.7%)는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선호하고 있어 서로 다르게 인식하였다. 이러한 반응 결과는 학생들의 경우 학습을 통해 자신의 소질과 특기 계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학부모들의 경우 학습을 통해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쌓아서 그것을 바탕으로 능력을 향상시키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발표 진행 방법 선호

<표Ⅳ-7>와 같이 발표 진행 방법에 대한 전체 응답을 살펴보면 발표 아동을 지명하여 골고루 시키는 선생님이 34.9%로 가장 많았으며, 희망을 우

선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지명하는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선생님(26.2%)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별($\chi^2=109.090$, $df=4$, $p<.001$)과 성별($\chi^2=20.780$ $df=4$, $p<.001$)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지역별($\chi^2=3.902$ $df=4$, $p>.05$), 학년별($\chi^2=7.788$, $df=4$, $p>.05$), 연령별($\chi^2=20.637$, $df=12$, $p>.05$)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표Ⅳ-7> 발표 진행 방법 선호

사례수(%)

| 구 분 | | 희망아동을 우선 발표 | 희망을 우선으로, 상황에 따라 지명 | 자율적으로 일어서나 발표 | 지명하여 골고루 발표 | 기타 | 전체 | χ^2 df p |
|-----|-------|-------------|---------------------|---------------|-------------|--------|------------|--------------------------|
| 대상별 | 학생 | 108(36.6) | 42(14.2) | 49(16.6) | 89(30.2) | 7(2.4) | 295(100.0) | 109.090 4 .000 *** |
| | 학부모 | 11(4.2) | 104(39.5) | 40(15.2) | 106(40.3) | 2(.8) | 263(100.0) | |
| 성별 | 남 | 60(26.8) | 41(18.3) | 47(21.0) | 73(32.6) | 3(1.3) | 224(100.0) | 20.780 4 .000 *** |
| | 여 | 59(17.7) | 105(31.4) | 42(12.6) | 122(36.5) | 6(1.8) | 334(100.0) | |
| 지역 | 시지역 | 64(22.9) | 80(28.6) | 39(13.9) | 93(33.2) | 4(1.4) | 280(100.0) | 3.902 4 .419 |
| | 읍·면지역 | 55(19.8) | 66(23.7) | 50(18.0) | 102(36.7) | 5(1.8) | 278(100.0) | |
| 학년 | 5학년 | 59(39.6) | 16(10.7) | 19(12.8) | 51(34.2) | 4(2.7) | 149(100.0) | 7.788 4 .100 |
| | 6학년 | 49(33.6) | 26(17.8) | 30(20.5) | 38(26.0) | 3(2.1) | 146(100.0) | |
| 연령별 | 20대 | 1(20.0) | 1(20.0) | 2(40.0) | 1(20.0) | 0(.0) | 5(100.0) | 20.637 12 .056 |
| | 30대 | 2(2.2) | 40(44.0) | 9(9.9) | 38(41.8) | 2(2.2) | 91(100.0) | |
| | 40대 | 7(4.5) | 61(39.4) | 24(15.5) | 63(40.6) | 0(.0) | 155(100.0) | |
| | 50대 | 1(8.3) | 2(16.7) | 5(41.7) | 4(33.3) | 0(.0) | 12(100.0) | |
| 전체 | | 119(21.3) | 146(26.2) | 89(15.9) | 195(34.9) | 9(1.6) | 558(100.0) | |

*** $p<.001$

대상별로 살펴보면 학생(36.6%)은 희망하는 아동을 우선으로 발표시키는 선생님을 선호하는 반면에 학부모(40.3%)는 발표 아동을 지명하여 골고루 시키는 선생님을 선호하고 있어 서로 다르게 인식하였다. 성별의 경우는 여자(31.4%)가 남자(18.3)보다 희망을 우선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지명하는 발표 방법에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반응 결과는 학생들의 경우 발표는 희망하는 사람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학부모들의 경우 골

고루 발표를 시킴으로써 발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아침 자습 지도 방법

<표Ⅳ-8>와 같이 아침 자습 지도 방법에 대한 전체 응답을 살펴보면 스스로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하는 선생님이 37.5%로 가장 많았으며, 주제를 정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게 하는 선생님(27.4%)과 독서를 하도록 지도하는 선생님(25.6%)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별($\chi^2=89.569$, $df=4$, $p<.001$)과 성별($\chi^2=23.914$, $df=4$, $p<.001$) 그리고 연령별($\chi^2=29.193$, $df=12$, $p<.05$)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지역별($\chi^2=7.775$ $df=4$, $p>.05$), 학년별($\chi^2=8.093$, $df=4$, $p>.05$)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표Ⅳ-8> 아침 자습 지도 방법

| | | 사례수(%) | | | | | | |
|-----|-------|------------------------|-----------|--------------------------|-------------------------|--------|------------|-------------------------|
| 구 분 | | 자유롭게 활동 하도록 함 | 독서 지도 | 교과학습 과 관련된 문제풀이 | 주제를 정하여 다양한 활동 | 기타 | 전체 | χ^2 df p |
| 대상별 | 학생 | 163(55.3) | 48(16.3) | 19(6.4) | 61(20.7) | 4(1.4) | 295(100.0) | 89.569 4 .000 *** |
| | 학부모 | 46(17.5) | 95(36.1) | 29(11.0) | 92(35.0) | 1(.4) | 263(100.0) | |
| 성별 | 남 | 104(46.4) | 39(17.4) | 23(10.3) | 54(24.1) | 4(1.8) | 224(100.0) | 23.914 4 .000 *** |
| | 여 | 105(31.4) | 104(31.1) | 25(7.5) | 99(29.6) | 1(.3) | 334(100.0) | |
| 지역 | 시지역 | 95(33.9) | 85(30.4) | 21(7.5) | 77(27.5) | 2(.7) | 280(100.0) | 7.775 4 .100 |
| | 읍·면지역 | 114(41.0) | 58(20.9) | 27(9.7) | 76(27.3) | 3(1.1) | 278(100.0) | |
| 학년 | 5학년 | 81(54.4) | 23(15.4) | 5(3.4) | 37(24.8) | 3(2.0) | 149(100.0) | 8.093 4 .088 |
| | 6학년 | 82(56.2) | 25(17.1) | 14(9.6) | 24(16.4) | 1(.7) | 146(100.0) | |
| 연령별 | 20대 | 1(20.0) | 0(.0) | 1(20.0) | 3(60.0) | 0(.0) | 5(100.0) | 29.193 12 .004 ** |
| | 30대 | 11(12.1) | 37(40.7) | 6(6.6) | 37(40.7) | 0(.0) | 91(100.0) | |
| | 40대 | 32(20.6) | 57(36.8) | 16(10.3) | 49(31.6) | 1(.6) | 155(100.0) | |
| | 50대 | 2(16.7) | 1(8.3) | 6(50.0) | 3(25.0) | 0(.0) | 12(100.0) | |
| 전체 | | 209(37.5) | 143(25.6) | 48(8.6) | 153(27.4) | 5(.9) | 558(100.0) | |

** $p<.01$ *** $p<.001$

대상별로 살펴보면 학생(55.3%)은 스스로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하는 선생님을 선호하는 반면에 학부모(36.1%)는 독서를 하도록 지도하는 선생님을 선호하고 있어 서로 다르게 인식하였다. 성별의 경우는 남자(46.4%), 여자(31.4%) 모두 스스로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하는 선생님을 선호하고 있었다. 연령별의 경우 20대(60.0%)는 주제를 정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게 하는 선생님을 선호하였고, 30대(40.7%)는 독서 지도와 다양한 활동을 하게 하는 선생님을 고르게 선호하고 있었으며, 40대(36.8%)는 독서를 지도하도록 하는 선생님을 선호하였다. 그리고 50대(50.0%)는 교과학습과 관련된 문제를 풀게 하는 선생님을 가장 선호하고 있어 서로 다르게 인식하였다. 이러한 반응 결과는 학생들의 경우 아침 시간에 자유롭게 활동하고 싶은 반면 학부모들은 조용히 독서하는 시간으로 활용하기를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부모의 연령이 낮은 경우 다양한 활동을 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연령이 높은 경우 예전처럼 교과 학습과 관련된 내용을 지도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세대간의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견해라고 생각된다.

(8) 일기 쓰기 지도 방법 선호

<표Ⅳ-9>와 같이 일기 쓰기 지도 방법에 대한 전체 응답을 살펴보면 2~3일에 한번씩 쓰도록 하는 선생님을 30.6%로 가장 선호하였고, 매일 꼭 쓰도록 지도해 주는 선생님(25.6%)과 자율적으로 쓰게 하고 가끔씩 검사하는 선생님(22.9%)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별($\chi^2=80.711$, $df=4$, $p<.001$)과 지역별($\chi^2=11.102$, $df=4$, $p<.05$) 그리고 연령별($\chi^2=32.546$, $df=12$, $p<.01$)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성별($\chi^2=9.449$, $df=4$, $p>.05$), 학년별($\chi^2=.176$, $df=4$, $p>.05$)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대상별로 살펴보면 학생(31.2%)은 개인 생활이므로 자율에 맡기고 검사하지 않는 선생님 선호하는 반면에 학부모(37.6%)는 매일 매일 꼭 쓰도록 지도해 주는 선생님을 선호하고 있어 서로 다르게 인식하였다. 지역별의

경우는 시지역(30.4%)은 매일 매일 꼭 쓰도록 지도하는 선생님을 가장 선호하는 반면에 읍·면지역(31.7%)은 2~3일에 한번씩 쓰도록 하는 선생님을 선호하였다. 연령별의 경우 20대(60.0%), 40대(38.7%), 50대(41.7%)는 매일 매일 쓰게 하는 선생님을 30대(40.7%)는 2~3일에 한번씩 쓰도록 하는 선생님을 가장 선호하고 있었다. 이러한 반응 결과는 학생들의 경우 일기를 쓰기 싫어하기 때문이며, 학부모의 경우 일기가 학생들의 학습이나 생활 지도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는 차이라 생각된다.

<표Ⅳ-9> 일기 쓰기 지도 방법 선호

사례수(%)

| 구 분 | | 매일 쓰게 함 | 2-3일에 한번 쓰게 함 | 자율에 맡김 | 자율에 맡기고 가끔 검사 | 기타 | 전체 | χ^2 df p |
|-----|-------|------------|---------------------|-----------|------------------------|---------|------------|-------------------------|
| 대상별 | 학생 | 44(14.9) | 85(28.8) | 92(31.2) | 66(22.4) | 8(2.7) | 295(100.0) | 80.711 4 .000 *** |
| | 학부모 | 99(37.6) | 86(32.7) | 14(5.3) | 62(23.6) | 2(.8) | 263(100.0) | |
| 성별 | 남 | 57(25.4) | 55(24.6) | 53(23.7) | 54(24.1) | 5(2.2) | 224(100.0) | 9.449 4 .051 |
| | 여 | 86(25.7) | 116(34.7) | 53(15.9) | 74(22.2) | 5(1.5) | 334(100.0) | |
| 지역 | 시지역 | 85(30.4) | 83(29.6) | 41(14.6) | 65(23.2) | 6(2.1) | 280(100.0) | 11.102 4 .025 * |
| | 읍·면지역 | 58(20.9) | 88(31.7) | 65(23.4) | 63(22.7) | 4(1.4) | 278(100.0) | |
| 학년 | 5학년 | 23(15.4) | 43(28.9) | 45(30.2) | 34(22.8) | 4(2.7) | 149(100.0) | .176 4 .996 |
| | 6학년 | 21(14.4) | 42(28.8) | 47(32.2) | 32(21.9) | 4(2.7) | 146(100.0) | |
| 연령별 | 20대 | 3(60.0) | 0(.0) | 0(.0) | 1(20.0) | 1(20.0) | 5(100.0) | 32.546 12 .001 ** |
| | 30대 | 31(34.1) | 37(40.7) | 5(5.5) | 18(19.8) | 0(.0) | 91(100.0) | |
| | 40대 | 60(38.7) | 47(30.3) | 8(5.2) | 39(25.2) | 1(.6) | 155(100.0) | |
| | 50대 | 5(41.7) | 2(16.7) | 1(8.3) | 4(33.3) | 0(.0) | 12(100.0) | |
| 전체 | | 143(25.6) | 171(30.6) | 106(19.0) | 128(22.9) | 10(1.8) | 558(100.0) | |

** p<.01 *** p<.001

(9) 일기 내용 지도 방법 선호

<표Ⅳ-10>와 같이 일기 내용 지도 방법에 대한 전체 응답을 살펴보면 읽어보고 잘한 점이나 잘못된 점만 지도해 주는 선생님을 37.5%로 가장

선호하였고, 읽어보고 특별히 지도할 경우가 있을 때만 지도하는 선생님 (32.3%)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별($\chi^2=26.978$, $df=4$, $p<.001$)과 성별($\chi^2=17.189$, $df=4$, $p<.01$) 그리고 지역별($\chi^2=12.129$ $df=4$, $p<.05$)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학년별($\chi^2=4.250$, $df=4$, $p>.05$), 연령별($\chi^2=15.580$, $df=12$, $p>.05$)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표Ⅳ-10> 일기 내용 지도 방법

사례수(%)

| 구 분 | | 참고만 함 | 일일이 지도 함 | 잘한점과 잘못한 점 지도 | 지도할 경우가 있을때만 지도 | 기타 | 전체 | χ^2 df p |
|-----|-------|-----------|-------------|---------------------|--------------------------|---------|------------|-------------------------|
| 대상별 | 학생 | 67(22.7) | 29(9.8) | 110(37.3) | 75(25.4) | 14(4.7) | 295(100.0) | 26.978 4 .000 *** |
| | 학부모 | 28(10.6) | 28(10.6) | 99(37.6) | 105(39.9) | 3(1.1) | 263(100.0) | |
| 성별 | 남 | 54(24.1) | 15(6.7) | 82(36.6) | 65(29.0) | 8(3.6) | 224(100.0) | 17.189 4 .002 ** |
| | 여 | 41(12.3) | 42(12.6) | 127(38.0) | 115(34.4) | 9(2.7) | 334(100.0) | |
| 지역 | 시지역 | 399(13.9) | 35(12.5) | 98(35.0) | 95(33.9) | 13(4.6) | 280(100.0) | 12.129 4 .016 * |
| | 읍·면지역 | 56(20.1) | 22(7.9) | 111(39.9) | 85(30.6) | 4(1.4) | 278(100.0) | |
| 학년 | 5학년 | 36(24.2) | 17(11.4) | 48(32.2) | 39(29.2) | 9(6.0) | 149(100.0) | 4.250 4 .373 |
| | 6학년 | 31(21.2) | 12(8.2) | 62(42.5) | 36(24.7) | 5(3.4) | 146(100.0) | |
| 연령별 | 20대 | 0(0) | 1(20.0) | 3(60.0) | 1(20.0) | 0(0) | 5(100.0) | 15.580 12 .212 |
| | 30대 | 7(7.7) | 6(6.6) | 42(46.2) | 36(39.6) | 0(0) | 91(100.0) | |
| | 40대 | 18(11.6) | 20(12.9) | 48(31.0) | 66(42.6) | 3(1.9) | 155(100.0) | |
| | 50대 | 3(25.0) | 1(8.3) | 6(50.6) | 2(16.7) | 0(0) | 12(100.0) | |
| 전체 | | 95(17.0) | 57(10.2) | 209(37.5) | 180(32.3) | 17(3.0) | 558(100.0) | |

* $p<.05$ ** $p<.01$ *** $p<.001$

대상별로 살펴보면 학생(37.3%)은 읽어보고 잘한 점이나 잘못된 점만 지도해 주는 선생님 선호하는 반면에 학부모(39.9%)는 읽어보고 특별히 지도할 경우가 있을 때만 지도하는 선생님을 선호하고 있어 서로 다르게 인식하였다. 성별의 경우 남자(24.1%)가 여자(12.3%)보다 읽어보고 참고만 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의 경우는 시지역(35.0%)과 읍·면지역(39.9%) 모두 읽어보고 잘한 점이나 잘못된 점만 지도해 주는 선생님을 가장 선호하였다. 이러한 반응 결과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 일기를 읽어보

고 간단히 지도해 주기를 바라고 있으나 학생들의 경우 선생님이 일기장에 기록해 주는 내용을 읽어 보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생각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나. 생활지도에 대한 인식

(1) 학생 지도 방법 선호

<표Ⅳ-11>와 같이 학생 지도 방법에 대한 전체 응답을 살펴보면 예의 바르고 인성이 바른 사람이 되도록 지도해 주는 선생님과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도록 지도해 주는 선생님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각각 38.5%와 3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별($\chi^2=81.216$, $df=4$, $p<.001$)과 성별($\chi^2=12.056$, $df=4$, $p<.05$)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지역별($\chi^2=2.725$, $df=4$, $p>.05$), 학년별($\chi^2=2.094$, $df=4$, $p>.05$), 연령별($\chi^2=4.414$, $df=12$, $p>.05$)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대상별로 살펴보면 학생(31.2%)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도록 지도해 주는 선생님을 선호하는 반면에 학부모(49.8%)는 예의 바르고 인성이 바른 사람이 되도록 지도해 주는 선생님을 선호하고 있어 서로 다르게 인식하였다. 성별의 경우는 남자(35.3%)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도록 지도해 주는 선생님을 선호하는 반면에 여자(42.5%)는 예의 바르고 인성이 바른 사람이 되도록 지도해 주는 선생님을 선호하고 있어 서로 다르게 인식하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네 가지 모두 다 되도록 지도해 주는 선생님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이러한 반응 결과는 학생과 남자의 경우 성실과 책임감을 더 중요시하고, 학부모와 여자의 경우 예절과 바른 인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의 차이가 다소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표Ⅳ-11> 학생 지도 방법 선호

사례수(%)

| 구 분 | | 공부잘하 는 사람 | 성실하고 책임감있 는 사람 | 예의바르 고 인성이 바른 사람 | 자기주도 적이고 개성이 뚜렷한 사람 | 기타 | 전체 | X ² df p |
|-----|-------|--------------|----------------------|------------------------------|---------------------------------|--------|------------|---------------------------|
| 대상별 | 학생 | 59(20.0) | 92(31.2) | 84(28.5) | 53(18.0) | 7(2.4) | 295(100.0) | 81.216 4 .000 *** |
| | 학부모 | 4(1.5) | 109(41.4) | 131(49.8) | 19(7.2) | 0(0) | 263(100.0) | |
| 성별 | 남 | 36(16.1) | 79(35.3) | 73(32.6) | 33(14.7) | 3(1.3) | 224(100.0) | 12.056 4 .017 * |
| | 여 | 27(8.1) | 122(36.5) | 142(42.5) | 39(11.7) | 4(1.2) | 334(100.0) | |
| 지역 | 시지역 | 33(11.8) | 92(32.9) | 114(40.7) | 38(13.6) | 3(1.1) | 280(100.0) | 2.725 4 .605 |
| | 읍·면지역 | 30(10.8) | 109(39.2) | 101(36.3) | 34(12.2) | 4(1.4) | 278(100.0) | |
| 학년 | 5학년 | 34(22.8) | 43(28.9) | 43(28.9) | 25(16.8) | 4(2.7) | 149(100.0) | 2.094 4 .718 |
| | 6학년 | 25(17.1) | 49(33.6) | 41(28.1) | 28(19.2) | 3(2.1) | 146(100.0) | |
| 연령별 | 20대 | 0(0) | 2(40.0) | 3(60.0) | 0(0) | 0(0) | 5(100.0) | 4.414 9 .882 |
| | 30대 | 1(1.1) | 35(38.5) | 51(56.0) | 4(4.4) | 0(0) | 91(100.0) | |
| | 40대 | 3(1.9) | 66(42.6) | 72(46.5) | 14(9.0) | 0(0) | 155(100.0) | |
| | 50대 | 0(0) | 6(50.0) | 5(41.7) | 1(8.4) | 0(0) | 12(100.0) | |
| 전체 | | 63(11.3) | 201(36.0) | 215(38.5) | 72(12.9) | 7(1.3) | 558(100.0) | |

* p<.05 *** p<.001

(2) 체벌에 대한 생각

<표Ⅳ-12>와 같이 체벌에 대한 생각에 대한 전체 응답을 살펴보면 조사 대상자의 48.7%가 경우에 따라 적당한 체벌은 허용해야한다는 의견에 응답하였고, 체벌 대신 청소나 봉사활동 등 다른 방법으로 지도(33.0%)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별($\chi^2=39.860$, $df=4$, $p<.001$)과 성별($\chi^2=15.936$, $df=4$, $p<.01$)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지역별($\chi^2=1.590$ $df=4$, $p>.05$), 학년별($\chi^2=8.205$, $df=4$, $p>.05$), 연령별($\chi^2=11.758$, $df=12$, $p>.05$)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대상별로 살펴보면 학생(20.0%)이 학부모(4.6%)보다 체벌이 없어져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18.8%)가 여자(8.7%)보다 체벌이 없어져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 체벌대신 잘못

한 사람을 조용히 불러내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반성하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반응 결과는 학생 특히 남학생들이 학교에서 더 많은 체벌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체벌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표Ⅳ-12> 체벌에 대한 생각

사례수(%)

| 구 분 | | 없어져야 함 | 경우에 따른 적당체벌 | 체벌대신 청소나봉사활동 등 다른방법 시도 | 만드시 필요함 | 기타 | 전체 | χ^2 df p |
|-----|-------|----------|-------------|------------------------|---------|-------|------------|-------------------------|
| 대상별 | 학생 | 59(20.0) | 146(49.5) | 73(24.7) | 16(5.4) | 1(.3) | 295(100.0) | 39.860 4 .000 *** |
| | 학부모 | 12(4.6) | 126(47.9) | 111(42.2) | 14(5.3) | 0(.0) | 263(100.0) | |
| 성별 | 남 | 42(18.8) | 108(48.2) | 61(27.2) | 12(5.4) | 1(.4) | 224(100.0) | 15.936 4 .003 ** |
| | 여 | 29(8.7) | 164(49.1) | 123(36.8) | 18(5.4) | 0(.0) | 334(100.0) | |
| 지역 | 시지역 | 36(12.9) | 132(47.1) | 96(34.3) | 15(5.4) | 1(.4) | 280(100.0) | 1.590 4 .811 |
| | 읍·면지역 | 35(12.6) | 140(50.4) | 88(31.7) | 15(5.4) | 0(.0) | 278(100.0) | |
| 학년 | 5학년 | 36(24.2) | 74(49.7) | 34(22.8) | 4(2.7) | 1(.7) | 149(100.0) | 8.205 4 .084 |
| | 6학년 | 23(15.8) | 72(49.3) | 39(26.7) | 12(8.2) | 0(.0) | 146(100.0) | |
| 연령별 | 20대 | 0(.0) | 2(40.0) | 3(60.0) | 0(.0) | 0(.0) | 5(100.0) | 11.758 9 .227 |
| | 30대 | 3(3.3) | 42(46.2) | 43(47.3) | 3(3.3) | 0(.0) | 91(100.0) | |
| | 40대 | 9(5.8) | 73(47.1) | 64(41.3) | 9(5.8) | 0(.0) | 155(100.0) | |
| | 50대 | 0(.0) | 9(75.0) | 1(8.3) | 2(16.7) | 0(.0) | 12(100.0) | |
| 전체 | | 71(12.7) | 272(48.7) | 184(33.0) | 30(5.4) | 1(.2) | 558(100.0) | |

** p<.01 *** p<.001

(3) 급식 지도 방법

<표Ⅳ-13>와 같이 급식 지도 방법에 대한 전체 응답을 살펴보면 조사대상자의 63.8%가 싫어하는 음식이라도 조금만이라도 먹게 하는 선생님을 선호하였고,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먹게 하는 선생님(18.6%)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별($\chi^2=53.357$, $df=4$, $p<.001$)과 성별($\chi^2=15.412$, $df=4$, $p<.01$) 그리고 연령별($\chi^2=22.269$, $df=12$, $p<.05$)에 따라 차이

가 있었으나, 지역별($\chi^2=5.750$ df=4, $p>.05$), 학년별($\chi^2=5.873$, df=4, $p>.05$)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대상별로 살펴보면 학생(27.1%)이 학부모(9.1%)보다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먹게 하는 선생님을 좋아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69.2%)가 남자(55.8%)보다 싫어하는 음식이라도 조금만이라도 먹게 하는 선생님을 선호하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83.5%)와 40대(70.3%)가 싫어하는 음식이라도 조금만이라도 먹게 하는 선생님을 선호하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반응 결과는 급식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짜여진 식단에 따라 음식이 나오기 때문에 먹기 싫더라도 먹게 하는 것이 학생들을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Ⅳ-13> 급식 지도 방법

| | | 사례수(%) | | | | | | |
|-----|-------|--------------------|-----------------|-----------------------------|------------------|--------|------------|-------------------------|
| 구 분 | | 먹고싶은 대로 먹게 함 | 남기지 못하게 함 | 싫어하는 음식은 조금이라 도먹게함 | 특정날은 남기게 함 | 기타 | 전체 | χ^2 df p |
| 대상별 | 학생 | 80(27.1) | 13(4.4) | 162(54.9) | 36(12.2) | 4(1.4) | 295(100.0) | 53.357 4 .000 *** |
| | 학부모 | 24(9.1) | 32(12.2) | 194(73.8) | 11(4.2) | 2(.8) | 263(100.0) | |
| 성별 | 남 | 55(24.6) | 24(10.7) | 125(55.8) | 19(8.5) | 1(.4) | 224(100.0) | 15.412 4 .004 ** |
| | 여 | 49(14.7) | 21(6.3) | 231(69.2) | 28(8.4) | 5(1.5) | 334(100.0) | |
| 지역 | 시지역 | 62(22.1) | 22(7.9) | 174(62.1) | 20(7.1) | 2(.7) | 280(100.0) | 5.750 4 .219 |
| | 읍·면지역 | 42(15.1) | 23(8.3) | 182(65.5) | 27(9.7) | 4(1.4) | 278(100.0) | |
| 학년 | 5학년 | 44(29.5) | 3(2.0) | 84(56.4) | 17(11.4) | 1(.7) | 149(100.0) | 5.873 4 .209 |
| | 6학년 | 36(24.7) | 10(6.8) | 78(53.4) | 19(13.0) | 3(2.1) | 146(100.0) | |
| 연령별 | 20대 | 2(40.0) | 0(.0) | 2(40.0) | 1(20.0) | 0(.0) | 5(100.0) | 22.269 12 .035 * |
| | 30대 | 4(4.4) | 5(5.5) | 76(83.5) | 5(5.5) | 1(1.1) | 91(100.0) | |
| | 40대 | 16(10.3) | 25(16.1) | 109(70.3) | 4(2.6) | 1(.6) | 155(100.0) | |
| | 50대 | 2(16.7) | 2(16.7) | 7(58.3) | 1(8.3) | 0(.0) | 12(100.0) | |
| 전체 | | 104(18.6) | 45(8.1) | 356(63.8) | 47(8.4) | 6(1.1) | 558(100.0) | |

* $p<.05$ ** $p<.01$ *** $p<.001$

(4) 학생에 대한 선생님의 자세

<표Ⅳ-14>와 같이 학생에 대한 선생님의 자세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전체의 47.1%가 공평하게 대해 주는 선생님을 선호하였고, 친절하고 자상하게 대해주는 선생님(45.3%)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별($\chi^2=44.038$, $df=4$, $p<.001$)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성별($\chi^2=.574$, $df=4$, $p>.05$), 지역별($\chi^2=1.986$, $df=4$, $p>.05$), 학년별($\chi^2=4.213$, $df=4$, $p>.05$), 연령별($\chi^2=4.180$, $df=12$, $p>.05$)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표Ⅳ-14> 학생에 대한 선생님의 자세

| | | 사례수(%) | | | | | | |
|-----|-------|------------|-----------|------------------|--------------------|--------|------------|-------------------------|
| 구 분 | | 공평하게 대함 | 엄하게대 함 | 기분에 따라 행동함 | 친절하고 자상하게 대함 | 기타 | 전체 | χ^2 df p |
| 대상별 | 학생 | 106(35.9) | 9(3.1) | 15(5.1) | 160(54.2) | 5(1.7) | 295(100.0) | 44.038 4 .000 *** |
| | 학부모 | 157(59.7) | 12(4.6) | 0(0) | 93(35.4) | 1(4) | 263(100.0) | |
| 성별 | 남 | 109(48.7) | 9(4.0) | 6(2.7) | 98(43.8) | 2(9) | 224(100.0) | .574 4 .966 |
| | 여 | 154(46.1) | 12(3.6) | 9(2.7) | 155(46.4) | 4(1.2) | 334(100.0) | |
| 지역 | 시지역 | 133(47.5) | 8(2.9) | 7(2.5) | 128(45.7) | 4(1.4) | 280(100.0) | 1.986 4 .738 |
| | 읍·면지역 | 130(46.8) | 13(4.7) | 8(2.9) | 125(45.0) | 2(7) | 278(100.0) | |
| 학년 | 5학년 | 51(34.2) | 3(2.0) | 5(3.4) | 87(58.4) | 3(2.0) | 149(100.0) | 4.213 4 .378 |
| | 6학년 | 55(37.7) | 6(4.1) | 10(6.8) | 73(50.0) | 2(1.4) | 146(100.0) | |
| 연령별 | 20대 | 2(40.0) | 0(0) | 0(0) | 3(60.0) | 0(0) | 5(100.0) | 4.180 9 .899 |
| | 30대 | 53(58.2) | 3(3.3) | 0(0) | 35(38.5) | 0(0) | 91(100.0) | |
| | 40대 | 94(60.6) | 9(5.8) | 0(0) | 51(32.9) | 1(6) | 155(100.0) | |
| | 50대 | 8(66.7) | 0(0) | 0(0) | 4(33.3) | 0(0) | 12(100.0) | |
| 전체 | | 263(47.1) | 21(3.8) | 15(2.7) | 253(45.3) | 6(1.1) | 558(100.0) | |

*** $p<.001$

대상별로 살펴보면 학생(54.2%)은 친절하고 자상하게 대해주는 선생님을 선호하는 반면에, 학부모(59.7%)는 공평하게 대해 주는 선생님을 선호하고 있어 서로 다르게 인식하였다. 연령별의 경우 30대(3.3%)와 40대(5.8%)가 소수의 의견이지만 엄하게 대해주는 선생님이 응답한 반면에, 20대와 50대는 전혀 응답이 없었다. 이러한 반응 결과는 학생들의 경우 친절하고 자상

한 선생님을 가장 기대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의 경우 자녀가 공평하게 대접받기를 바라는 생각을 잘 나타내고 있다.

(5) 잘못을 저질렀을 때 지도 방법

<표Ⅳ-15>와 같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지도 방법에 대한 전체 응답을 살펴보면 개별 지도를 하는 선생님이 65.1%로 가장 높았으며, 주의만 주고 지나가는 선생님(14.9%)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별($\chi^2=91.488$, $df=4$, $p<.001$)과 성별($\chi^2=26.879$, $df=4$, $p<.001$)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지역별($\chi^2=4.469$, $df=4$, $p>.05$), 학년별($\chi^2=9.050$, $df=4$, $p>.05$), 연령별($\chi^2=18.634$, $df=12$, $p>.05$)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표Ⅳ-15> 잘못을 저질렀을 때 지도 방법

| | | 사례수(%) | | | | | | |
|-----|-------|--------------------------|-----------|---------------|------------------|---------|------------|-------------------------|
| 구 분 | | 여러사람 앞에서 공개적 지도 | 개별지도 | 부모님께 알려 지도 | 주의만 주고 지나감 | 기타 | 전체 | χ^2 df p |
| 대상별 | 학생 | 37(12.5) | 157(53.2) | 16(5.4) | 80(27.1) | 5(1.7) | 295(100.0) | 91.488 4 .000 *** |
| | 학부모 | 15(5.7) | 206(78.3) | 32(12.2) | 3(1.1) | 7(2.7) | 263(100.0) | |
| 성별 | 남 | 29(12.9) | 122(54.5) | 20(8.9) | 50(22.3) | 3(1.3) | 224(100.0) | 26.879 4 .000 *** |
| | 여 | 23(6.9) | 241(72.2) | 28(8.4) | 33(9.9) | 9(2.7) | 334(100.0) | |
| 지역 | 시지역 | 26(9.3) | 191(68.2) | 24(8.6) | 33(11.8) | 6(2.1) | 280(100.0) | 4.469 4 .346 |
| | 읍·면지역 | 26(9.4) | 172(61.9) | 24(8.6) | 50(18.0) | 6(2.2) | 278(100.0) | |
| 학년 | 5학년 | 11(7.4) | 80(53.7) | 8(5.4) | 48(32.2) | 2(1.3) | 149(100.0) | 9.509 4 .050 |
| | 6학년 | 26(17.8) | 77(52.7) | 8(5.5) | 32(21.9) | 3(2.1) | 146(100.0) | |
| 연령별 | 20대 | 1(20.0) | 3(60.0) | 1(20.0) | 0(0) | 0(0) | 5(100.0) | 18.634 12 .098 |
| | 30대 | 2(2.2) | 72(79.1) | 12(13.2) | 1(1.1) | 4(4.4) | 91(100.0) | |
| | 40대 | 12(7.7) | 124(80.8) | 14(9.0) | 2(1.3) | 3(1.9) | 155(100.0) | |
| | 50대 | 0(0) | 7(58.3) | 5(41.7) | 0(0) | 0(0) | 12(100.0) | |
| 전체 | | 52(9.3) | 363(65.1) | 48(8.6) | 83(14.9) | 12(2.2) | 558(100.0) | |

*** $p<.001$

대상별로 살펴보면 학생(27.1%)이 학부모(1.1%)보다 주의만 주고 지나가

는 선생님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남자(22.3%)가 여자(9.9%)보다 잘못을 저질러도 주의만 주고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반응 결과는 대부분 개별지도를 원하고 있지만 학생 특히 남학생의 경우 잘못을 저질러도 작은 잘못은 그냥 용서 받기를 바라는 성격적 성향을 잘 나타내고 있다.

(6) 상담시 문제 주제 선호

<표Ⅳ-16>와 같이 상담시 문제 주제 선호에 대한 전체 응답을 살펴보면 생활태도에 관한 문제가 39.8%로 가장 높았으며, 장래에 관한 문제(28.5%)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별($\chi^2=28.441$, $df=4$, $p<.001$)과 성별($\chi^2=27.164$, $df=4$, $p<.001$)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지역별($\chi^2=7.948$, $df=4$, $p>.05$), 학년별($\chi^2=6.948$, $df=4$, $p>.05$), 연령별($\chi^2=19.068$, $df=12$, $p>.05$)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표Ⅳ-16> 상담시 문제 주제 선호

| | | 사례수(%) | | | | | | |
|-------------|-------------|--------------|--------------|--------------|--------------|--------------------|---------|------------|
| 구 분 | | 성적에 관한 문제 | 친구에 관한 문제 | 건강에 관한 문제 | 장래에 관한 문제 | 생활태도 에 관한 문제 | 기타 | 전체 |
| 대상 별 | 학생 | 38(12.9) | 44(14.9) | 29(9.8) | 79(9.8) | 99(33.6) | 6(2.0) | 295(100.0) |
| | 학부모 | 25(9.5) | 24(9.1) | 4(1.5) | 80(30.4) | 123(46.8) | 7(2.7) | 263(100.0) |
| 성 별 | 남 | 24(10.7) | 21(9.4) | 27(12.1) | 62(27.7) | 84(37.5) | 6(2.7) | 224(100.0) |
| | 여 | 39(11.7) | 47(14.1) | 6(1.8) | 97(29.0) | 138(41.3) | 7(2.1) | 334(100.0) |
| 지 역 | 시지역 | 27(9.6) | 32(11.4) | 15(5.4) | 72(25.7) | 126(45.0) | 8(2.9) | 280(100.0) |
| | 읍·면· 군지역 | 36(12.9) | 36(12.9) | 18(6.5) | 87(31.3) | 96(34.5) | 5(1.8) | 278(100.0) |
| 학 년 | 5학년 | 20(13.4) | 27(18.1) | 16(10.7) | 34(22.8) | 51(34.2) | 1(.7) | 149(100.0) |
| | 6학년 | 18(12.3) | 17(11.6) | 13(8.9) | 45(30.8) | 48(32.9) | 5(3.4) | 146(100.0) |
| 연 령 별 | 20대 | 0(.0) | 0(.0) | 1(20.0) | 1(20.0) | 3(60.0) | 0(.0) | 5(100.0) |
| | 30대 | 8(8.8) | 9(9.9) | 2(2.2) | 26(28.6) | 41(45.1) | 5(5.5) | 91(100.0) |
| | 40대 | 16(10.3) | 14(9.0) | 1(.6) | 48(31.0) | 74(47.7) | 2(1.3) | 155(100.0) |
| | 50대 | 1(8.3) | 1(8.3) | 0(.0) | 5(41.7) | 5(41.7) | 0(.0) | 12(100.0) |
| 전체 | | 63(11.3) | 68(12.2) | 33(5.9) | 159(28.5) | 222(39.8) | 13(2.3) | 558(100.0) |

*** $p<.001$

대상별로 살펴보면 학부모(30.4%)가 학생(9.8%)보다 장애에 관한 문제에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남자(12.1%)가 여자(1.8%)보다 건강에 관한 문제에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반응 결과는 학부모들의 경우 자녀의 장애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학생들은 아직 어려서 장애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다. 학급 경영에 대한 인식

(1) 학급경영에 있어 가장 힘써야 할 일

<표Ⅳ-17>와 같이 학급경영에 있어 가장 힘써야 할 일에 대한 전체 응답을 살펴보면 예절 및 기본생활 습관 지도라는 응답이 40.9%로 가장 높았으며, 친구관계 및 협동 생활(27.6%)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별($\chi^2=34.784$, $df=4$, $p<.001$)과 성별($\chi^2=10.979$, $df=4$, $p<.05$)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지역별($\chi^2=6.528$, $df=4$, $p>.05$), 학년별($\chi^2=5.767$, $df=4$, $p>.05$), 연령별($\chi^2=18.646$, $df=12$, $p>.05$)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대상별로 살펴보면 학생(18.0%)이 학부모(3.8%)보다 안전과 건강지도에 힘써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여자(22.5%)가 남자(16.1%)보다 학업성적 향상에 힘써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 인성지도를 바탕으로 한 학업지도라는 응답도 있었다. 이러한 반응 결과는 초등학교에서는 예절 및 기본생활 습관 형성을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여자의 경우는 남자들 보다 학업성적에 더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표Ⅳ-17> 학급경영에 있어 가장 힘써야 할 일

사례수(%)

| 구 분 | | 학업성적 향상 | 예절 및 기본생활 습관지도 | 친구관계 및 협동생활 | 안전과 건강지도 | 기타 | 전체 | X ² df p |
|-----|-------|-----------|----------------|-------------|----------|--------|------------|---------------------------|
| 대상별 | 학생 | 64(21.7) | 102(34.6) | 76(25.8) | 53(18.0) | 0(.0) | 295(100.0) | 34.784 4 .000 *** |
| | 학부모 | 47(17.9) | 126(47.9) | 78(29.7) | 10(3.8) | 2(.8) | 263(100.0) | |
| 성별 | 남 | 36(16.1) | 99(44.2) | 55(24.6) | 32(14.3) | 2(.9) | 224(100.0) | 10.979 4 .027 * |
| | 여 | 75(22.5) | 129(38.6) | 99(29.6) | 31(9.3) | 0(.0) | 334(100.0) | |
| 지역 | 시지역 | 60(21.4) | 114(40.7) | 80(28.6) | 24(8.6) | 2(.7) | 280(100.0) | 6.528 4 .163 |
| | 읍·면지역 | 51(18.3) | 114(41.0) | 74(26.6) | 39(14.0) | 0(.0) | 278(100.0) | |
| 학년 | 5학년 | 32(22.8) | 42(28.2) | 42(28.2) | 31(20.8) | 0(.0) | 149(100.0) | 5.767 3 .124 |
| | 6학년 | 30(20.5) | 60(41.1) | 32(23.3) | 22(15.1) | 0(.0) | 146(100.0) | |
| 연령별 | 20대 | 2(40.0) | 0(.0) | 3(60.0) | 0(.0) | 0(.0) | 5(100.0) | 18.646 12 .097 |
| | 30대 | 18(19.8) | 38(41.8) | 32(35.2) | 3(3.3) | 0(.0) | 91(100.0) | |
| | 40대 | 26(16.8) | 84(54.2) | 38(24.5) | 5(3.2) | 2(1.3) | 155(100.0) | |
| | 50대 | 1(8.3) | 4(33.3) | 5(41.7) | 2(16.7) | 0(.0) | 12(100.0) | |
| 전체 | | 111(19.9) | 228(40.9) | 154(27.6) | 63(11.3) | 2(.4) | 558(100.0) | |

* p<.05 *** p<.001

(2) 선생님과 학생간의 관계

<표Ⅳ-18>와 같이 선생님과 학생간의 관계에 대한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40.7%가 선생님이 엄격함을 유지하면서 학생과 대화하는 관계를 선호하였고, 친구처럼 다정하게 지내는 관계(34.4%)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별($\chi^2=209.030$, $df=4$, $p<.001$)과 성별($\chi^2=13.718$, $df=4$, $p<.01$) 그리고 연령별($\chi^2=29.755$, $df=12$, $p<.01$)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지역별($\chi^2=6.249$ $df=4$, $p>.05$), 학년별($\chi^2=5.242$, $df=4$, $p>.05$)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대상별로 살펴보면 학생(53.6%)은 친구처럼 다정하게 지내는 관계를 원하는 반면에 학부모(72.7%)는 선생님이 엄격함을 유지하면서 학생과 대화하는 관계를 원하고 있어 서로 다르게 인식하였다. 성별의 경우 남자(36.3%)는 친구처럼 다정하게 지내는 관계를 원하는 반면에 여자(45.8%)는 선생님이 엄격함을 유지하면서 학생과 대화하는 관계를 원하고 있어 서로

다르게 인식하였다. 연령별의 경우 20대(60.0%)는 선생님의 생각보다는 학생들의 생각을 더 중요시하는 관계를 원하는 반면에 30대(69.2%), 40대(77.4%), 50대(50.0%)는 선생님이 엄격함을 유지하면서 학생과 대화하는 관계를 원하고 있어 서로 다르게 인식하였다. 이러한 반응 결과는 학생의 경우 친구처럼 다정하게 지내기를 바라고 있으나 학부모는 선생님의 엄격함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20대 학부모의 경우 학생들의 생각을 중요시하는 것을 바라는 점이 시대적 흐름을 나타내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표Ⅳ-18> 선생님과 학생간의 관계

사례수(%)

| 구 분 | | 선생님의 지시에 학생이 따르는 관계 | 친구처럼 다정한 관계 | 엄격함을 유지하고 대화하는 관계 | 학생들의 생각을 더중요시 하는 관계 | 기타 | 전체 | χ^2 df p |
|-----|-------|---------------------------------|-------------------|----------------------------|------------------------------|--------|------------|--------------------------|
| 대상별 | 학생 | 35(11.9) | 158(53.6) | 37(12.5) | 63(21.4) | 2(.7) | 295(100.0) | 209.030 4 .000 *** |
| | 학부모 | 12(4.6) | 34(12.9) | 190(72.7) | 26(9.9) | 1(.4) | 263(100.0) | |
| 성별 | 남 | 25(11.2) | 82(36.6) | 74(33.0) | 43(19.2) | 0(.0) | 224(100.0) | 13.718 4 .008 ** |
| | 여 | 22(6.6) | 110(32.9) | 153(45.8) | 46(13.8) | 3(.9) | 334(100.0) | |
| 지역 | 시지역 | 18(6.4) | 95(33.9) | 116(41.4) | 48(17.1) | 3(1.1) | 280(100.0) | 6.249 4 .181 |
| | 읍·면지역 | 29(10.4) | 97(34.9) | 111(39.9) | 41(14.7) | 0(.0) | 278(100.0) | |
| 학년 | 5학년 | 17(11.4) | 85(57.0) | 14(9.4) | 33(22.1) | 0(.0) | 149(100.0) | 5.242 4 .263 |
| | 6학년 | 18(12.3) | 73(50.0) | 23(15.8) | 30(20.5) | 2(1.4) | 146(100.0) | |
| 연령별 | 20대 | 0(.0) | 1(20.0) | 1(20.0) | 3(60.0) | 0(.0) | 5(100.0) | 29.755 12 .003 ** |
| | 30대 | 3(3.3) | 18(19.8) | 63(69.2) | 7(7.7) | 0(.0) | 91(100.0) | |
| | 40대 | 7(4.5) | 12(7.7) | 120(77.4) | 15(9.7) | 1(.6) | 155(100.0) | |
| | 50대 | 2(16.7) | 3(25.0) | 6(50.0) | 1(8.3) | 0(.0) | 12(100.0) | |
| 전체 | | 47(8.4) | 192(34.4) | 227(40.7) | 89(15.9) | 3(.5) | 558(100.0) | |

** p<.01 *** p<.001

(3) 학생들의 자리 배치 방법

<표Ⅳ-19>와 같이 학생들의 자리 배치 방법에 대한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42.8%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리를 정해주는 방법

을 선호하였고, 규칙을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앉게 하는 방법(32.4%)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별($\chi^2=136.694$, $df=4$, $p<.001$)과 성별($\chi^2=14.787$, $df=4$, $p<.01$)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지역별($\chi^2=8.412$, $df=4$, $p>.05$), 학년별($\chi^2=4.441$, $df=4$, $p>.05$), 연령별($\chi^2=13.825$, $df=12$, $p>.05$)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표Ⅳ-19> 학생들의 자리 배치 방법

사례수(%)

| 구 분 |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 | 남자와 여자로 짜여 배치 | 남자끼리 여자끼리 배치 | 자유롭게 앉게 함 | 기타 | 전 체 | χ^2 df p |
|-----|-------|---------------------|------------------------|--------------------|--------------|--------|------------|--------------------------|
| 대상별 | 학생 | 62(21.0) | 22(7.5) | 79(26.8) | 126(42.7) | 6(2.0) | 295(100.0) | 136.694 4 .000 *** |
| | 학부모 | 177(67.3) | 18(6.8) | 10(3.8) | 55(20.9) | 3(1.1) | 263(100.0) | |
| 성별 | 남 | 78(34.8) | 17(7.6) | 42(18.8) | 86(38.4) | 1(.4) | 224(100.0) | 14.787 4 .005 ** |
| | 여 | 161(48.2) | 23(6.9) | 47(14.1) | 95(28.4) | 8(2.4) | 334(100.0) | |
| 지역 | 시지역 | 132(47.1) | 24(8.6) | 42(15.0) | 79(28.2) | 3(1.1) | 280(100.0) | 8.412 4 .078 |
| | 읍·면지역 | 117(38.5) | 16(5.8) | 47(16.9) | 102(36.7) | 6(2.2) | 278(100.0) | |
| 학년 | 5학년 | 27(18.1) | 9(6.0) | 40(26.8) | 71(47.7) | 2(1.3) | 149(100.0) | 4.441 4 .350 |
| | 6학년 | 35(24.0) | 13(8.9) | 39(26.7) | 55(37.7) | 4(2.7) | 146(100.0) | |
| 연령별 | 20대 | 5(100.0) | 0(.0) | 0(.0) | 0(.0) | 0(.0) | 0(.0) | 13.825 12 .312 |
| | 30대 | 61(67.0) | 6(6.6) | 1(1.1) | 21(23.1) | 2(2.2) | 91(100.0) | |
| | 40대 | 105(67.7) | 9(5.8) | 8(5.2) | 32(20.6) | 1(.6) | 155(100.0) | |
| | 50대 | 6(50.0) | 3(25.0) | 1(8.3) | 2(16.7) | 0(.0) | 12(100.0) | |
| 전 체 | | 239(42.8) | 40(7.2) | 89(15.9) | 181(32.4) | 9(1.6) | 558(100.0) | |

** $p<.01$ *** $p<.001$

대상별로 살펴보면 학생(42.7%)은 규칙을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앉게 하는 방법을 원하는 반면에 학부모(67.4%)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리를 정하는 방법을 원하고 있어 서로 다르게 인식하였다. 성별의 경우 남자(38.4%)는 규칙을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앉게 하는 방법을 원하는 반면에 여자(48.2%)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리를 정하는 방법을 원하고 있어 서로 다르게 인식하였다. 이러한 반응 결과는 학생들은 친한 친구끼리 자리를 앉고 싶어하기 때문이며, 학부모들은 친한 친구끼리

않는 것 보다 학습이나 여러 가지 경우를 고려해서 자리를 앉게 하는 것이 보다 더 교육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학부모님과 선생님 의견 교환 방법

<표Ⅳ-20>와 같이 학부모님과 선생님 의견 교환 방법에 대한 전체 응답을 살펴보면 가정통신문(알림장이나 편지)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57.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화연락(13.9%)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별($\chi^2=26.165$, $df=4$, $p<.001$)과 성별($\chi^2=13.998$, $df=4$, $p<.05$)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지역별($\chi^2=8.259$, $df=4$, $p>.05$), 학년별($\chi^2=4.084$, $df=4$, $p>.05$), 연령별($\chi^2=12.071$, $df=12$, $p>.05$)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표Ⅳ-20> 학부모님과 선생님 의견 교환 방법

| | | 사례수(%) | | | | | | | χ^2 df p |
|-------------|-------|-------------------------|-----------|--------------|----------|------------------------|--------|------------|-------------------------|
| 구 분 | | 가정통신문 (알림장 이나 편지) | 전화연락 | 부모님의 학교방문 | 가정 방문 |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로 연락 | 기타 | 전체 | |
| 대 상 별 | 학생 | 148(50.2) | 60(20.3) | 20(6.8) | 35(11.9) | 30(10.2) | 2(7) | 295(100.0) | 26.165 5 .000 *** |
| | 학부모 | 175(66.5) | 51(19.4) | 12(4.6) | 7(2.7) | 16(6.1) | 2(8) | 263(100.0) | |
| 성 별 | 남 | 112(50.0) | 49(21.9) | 18(8.0) | 23(10.3) | 19(8.5) | 3(1.3) | 224(100.0) | 13.998 5 .016 * |
| | 여 | 211(63.2) | 62(18.6) | 14(4.2) | 19(5.7) | 27(8.1) | 1(3) | 334(100.0) | |
| 지 역 | 시지역 | 165(58.9) | 50(17.9) | 22(7.9) | 17(6.1) | 23(8.2) | 3(1.1) | 280(100.0) | 8.259 5 .143 |
| | 읍·면지역 | 158(56.8) | 61(21.9) | 10(3.6) | 25(9.0) | 23(8.3) | 1(4) | 278(100.0) | |
| 학 년 | 5학년 | 74(49.7) | 26(17.4) | 9(6.0) | 20(13.4) | 19(12.8) | 1(7) | 149(100.0) | 4.084 5 .537 |
| | 6학년 | 74(50.7) | 34(23.3) | 11(7.5) | 15(10.3) | 11(7.5) | 1(7) | 146(100.0) | |
| 연 령 별 | 20대 | 5(100.0) | 0(0) | 0(0) | 0(0) | 0(0) | 0(0) | 5(100.0) | 12.071 15 .674 |
| | 30대 | 60(65.9) | 19(20.9) | 4(4.4) | 4(4.4) | 4(4.4) | 0(0) | 91(100.0) | |
| | 40대 | 100(64.5) | 32(20.6) | 8(5.2) | 2(5.2) | 11(7.1) | 2(1.3) | 155(100.0) | |
| | 50대 | 10(83.8) | 0(0) | 0(0) | 1(8.3) | 1(8.3) | 0(0) | 12(100.0) | |
| 전체 | | 323(57.9) | 111(13.9) | 32(5.7) | 42(7.5) | 46(8.2) | 4(7) | 558(100.0) | |

* $p<.05$ *** $p<.001$

대상별로 살펴보면 학생(11.9%)이 학부모(2.7%)보다 가정 방문의 방법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남자(10.3%)가 여자(5.7%)보다 가정 방문의 방법에 더 높은 응답을 하였다. 이러한 반응 결과는 학부모들의 경우 가정 방문이나 학교 방문과 같은 직접적인 방법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친구와 싸웠을 때 처리 방법

<표IV-21>와 같이 친구와 싸웠을 때 처리 방법에 대한 전체 응답을 살펴보면 57.9%가 말로 잘못을 깨우쳐 주는 선생님을 선호하였고, 두 사람 모두 혼내는 선생님(24.2%)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별($\chi^2=10.299$, $df=4$, $p<.001$)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성별($\chi^2=3.739$, $df=4$, $p>.05$), 지역별($\chi^2=1.455$, $df=4$, $p>.05$), 학년별($\chi^2=4.938$, $df=4$, $p>.05$), 연령별($\chi^2=20.424$, $df=12$, $p>.05$)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표IV-21> 친구와 싸웠을 때 처리방법

| | | 사례수(%) | | | | | | |
|-----|-------|------------|---------------|---------------|--------------|---------|------------|-----------------------|
| 구 분 | | 모두 혼내는 선생님 | 잘잘못을 가려주는 선생님 | 부모님께 알려주는 선생님 | 말로 깨우쳐주는 선생님 | 기타 | 전체 | χ^2 df p |
| 대상별 | 학생 | 82(27.8) | 38(12.9) | 1(.3) | 165(55.9) | 9(3.1) | 295(100.0) | 10.299 4 .036 * |
| | 학부모 | 53(20.2) | 34(12.9) | 8(3.0) | 158(60.1) | 10(3.8) | 263(100.0) | |
| 성별 | 남 | 57(25.4) | 34(15.2) | 4(1.8) | 124(55.4) | 5(2.2) | 224(100.0) | 3.739 4 .443 |
| | 여 | 78(23.4) | 38(11.4) | 5(1.5) | 199(59.6) | 14(4.2) | 334(100.0) | |
| 지역 | 시지역 | 68(24.3) | 36(12.9) | 4(1.4) | 160(57.1) | 12(4.3) | 280(100.0) | 1.455 4 .835 |
| | 읍·면지역 | 67(24.1) | 36(12.9) | 5(1.8) | 163(58.6) | 7(2.5) | 278(100.0) | |
| 학년 | 5학년 | 36(24.2) | 24(16.1) | 1(.7) | 83(55.7) | 5(3.4) | 149(100.0) | 4.938 4 .294 |
| | 6학년 | 46(31.5) | 14(9.6) | 0(.0) | 82(56.2) | 4(2.7) | 146(100.0) | |
| 연령별 | 20대 | 3(60.0) | 1(20.0) | 0(.0) | 1(20.0) | 0(.0) | 5(100.0) | 20.424 12 0.59 |
| | 30대 | 22(24.2) | 4(4.4) | 4(4.4) | 55(60.4) | 6(6.6) | 91(100.0) | |
| | 40대 | 25(16.1) | 26(16.8) | 4(2.6) | 96(61.9) | 4(2.6) | 155(100.0) | |
| | 50대 | 3(25.0) | 3(25.0) | 0(.0) | 6(50.0) | 0(.0) | 12(100.0) | |
| 전체 | | 135(24.2) | 72(12.9) | 9(1.6) | 323(57.9) | 19(3.4) | 558(100.0) | |

* $p<.05$

대상별로 살펴보면 학생(55.9%)과 학부모(60.1%) 모두 말로 잘못을 깨우쳐 주는 선생님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반응 결과는 학생이나 학부모 모두 싸움이 발생하면 혼내는 것 보다 말로 잘 타일러 주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학급 임원 임명 방법

<표Ⅳ-22>와 같이 학급 임원 임명 방법에 대한 전체 응답을 살펴보면 1, 2학기교 나누어 두 차례 임명하여 활동하게 하는 방법에 59.0%가 응답하였고, 1주일씩 돌아가면서 임명하여 많은 학생이 활동하게 하는 방법(17.9%)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별($\chi^2=15.947$, $df=4$, $p<.01$)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성별($\chi^2=4.612$, $df=4$, $p>.05$), 지역별($\chi^2=5.700$, $df=4$, $p>.05$), 학년별($\chi^2=3.052$, $df=4$, $p>.05$), 연령별($\chi^2=18.140$, $df=12$, $p>.05$)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표Ⅳ-22> 학급 임원 임명 방법

| | | 사례수(%) | | | | | | |
|-----|-------|------------|-----------|--------------|--------------------|---------|------------|-------------------------|
| 구 분 | | 학기별로 임명 | 월별로 임명 | 임원제도 를 없앴 | 1주일씩 돌아가며 임명 | 기타 | 전체 | χ^2 df p |
| 대상별 | 학생 | 172(58.3) | 46(15.6) | 26(8.8) | 46(15.6) | 5(1.7) | 295(100.0) | 15.947 4 .003 ** |
| | 학부모 | 157(59.7) | 42(16.0) | 4(1.5) | 54(20.5) | 6(2.3) | 263(100.0) | |
| 성별 | 남 | 132(58.9) | 30(13.4) | 16(7.1) | 43(19.2) | 3(1.3) | 224(100.0) | 4.612 4 .330 |
| | 여 | 197(59.0) | 58(17.4) | 14(4.2) | 57(17.1) | 8(2.4) | 334(100.0) | |
| 지역 | 시지역 | 171(61.1) | 37(13.2) | 17(6.1) | 52(18.6) | 3(1.1) | 280(100.0) | 5.700 4 .223 |
| | 읍·면지역 | 158(56.8) | 51(18.3) | 13(4.7) | 48(17.3) | 8(2.9) | 278(100.0) | |
| 학년 | 5학년 | 84(56.4) | 23(15.4) | 11(7.4) | 28(18.8) | 3(2.0) | 149(100.0) | 3.052 4 .549 |
| | 6학년 | 88(60.3) | 23(15.8) | 15(10.3) | 18(12.3) | 2(1.4) | 146(100.0) | |
| 연령별 | 20대 | 2(40.0) | 1(20.0) | 0(0) | 2(40.0) | 0(0) | 5(100.0) | 18.140 12 .112 |
| | 30대 | 48(52.7) | 15(16.5) | 4(4.4) | 19(20.9) | 5(5.5) | 91(100.0) | |
| | 40대 | 101(65.2) | 24(15.5) | 0(0) | 29(18.7) | 1(.6) | 155(100.0) | |
| | 50대 | 6(50.0) | 2(16.7) | 0(0) | 4(33.3) | 0(0) | 12(100.0) | |
| 전체 | | 329(59.0) | 88(15.8) | 30(5.4) | 100(17.9) | 11(2.0) | 558(100.0) | |

** $p<.01$

대상별로 살펴보면 학생(58.3%)과 학부모(59.7%) 모두 1, 2학기로 나누어 두 차례 임명하여 활동하게 하는 방법에 높게 응답하였다. 이러한 반응 결과는 각 학기별로 한 번씩 학급 임원을 선출하여 활동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개인적 특성에 대한 인식

(1) 선생님의 성격유형 선호

<표Ⅳ-23>와 같이 선생님의 성격유형 선호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전체 조사대상자의 38.0%가 유머와 재치가 있는 선생님을 선호하였고, 학생들에게 다정하고 친절하게 대해 주는 선생님(27.2%)과 학생들을 공정하게 대해 주는 선생님(24.4%)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별($\chi^2=82.409$, $df=4$, $p<.001$)과 지역별($\chi^2=12.188$ $df=4$, $p<.05$)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성별($\chi^2=1.139$, $df=4$, $p>.05$), 학년별($\chi^2=7.097$, $df=4$, $p>.05$), 연령별($\chi^2=16.228$, $df=12$, $p>.05$)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대상별로 살펴보면 학생(51.2%)은 유머와 재치가 있는 선생님을 가장 선호하는 반면에 학부모(36.9%)는 학생들을 공정하게 대해 주는 선생님을 가장 선호하여 서로 다르게 인식하였다. 지역별의 경우 읍·면지역(42.8%)이 시지역(33.2%)보다 유머와 재치가 있는 선생님을 좋아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 야구나 농구같은 운동을 좋아하는 선생님, 재치가 있고 다정하면서 미소를 잃지 않는 선생님, 다정하고 친절하면서도 유머있고 친구같은 선생님이라는 응답이 있었다. 이러한 반응 결과는 학생들은 선생님과 재미있게 지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학부모들은 차별 대우에 대해 걱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Ⅳ-23> 선생님의 성격유형 선호

사례수(%)

| 구 분 | | 유머와 재치가 있는 선생님 | 엄격하고 책임감 있는 선생님 | 학생들을 공정하게 대해 주는 선생님 | 학생들에게 다정하고 친절하게 대해 주는 선생님 | 기타 | 전체 | X ² df p |
|-----|-------|----------------|-----------------|---------------------|---------------------------|---------|------------|---------------------------|
| 대상별 | 학생 | 151(51.2) | 13(4.4) | 39(13.2) | 82(27.8) | 10(3.4) | 295(100.0) | 82.409 4 .000 *** |
| | 학부모 | 61(23.2) | 35(13.3) | 97(36.9) | 70(26.6) | 0(.0) | 263(100.0) | |
| 성별 | 남 | 90(40.2) | 19(8.5) | 52(23.2) | 60(26.8) | 3(1.3) | 224(100.0) | 1.139 4 .888 |
| | 여 | 122(36.5) | 29(8.7) | 84(25.1) | 92(27.5) | 7(2.1) | 334(100.0) | |
| 지역 | 시지역 | 93(33.2) | 22(7.9) | 78(27.9) | 85(30.4) | 2(.7) | 280(100.0) | 12.188 4 .016 * |
| | 읍·면지역 | 119(42.8) | 26(9.4) | 58(20.9) | 67(24.1) | 8(2.9) | 278(100.0) | |
| 학년 | 5학년 | 77(51.7) | 2(1.3) | 22(14.8) | 43(28.9) | 5(3.4) | 149(100.0) | 7.097 4 .131 |
| | 6학년 | 74(50.7) | 11(7.5) | 17(11.6) | 39(26.7) | 5(3.4) | 146(100.0) | |
| 연령별 | 20대 | 2(40.0) | 1(20.0) | 0(.0) | 2(40.0) | 0(.0) | 5(100.0) | 16.228 9 .062 |
| | 30대 | 24(26.4) | 6(6.6) | 41(45.1) | 20(22.0) | 0(.0) | 91(100.0) | |
| | 40대 | 30(19.4) | 25(16.1) | 54(34.8) | 46(29.7) | 0(.0) | 155(100.0) | |
| | 50대 | 5(41.7) | 3(25.0) | 2(16.7) | 2(16.7) | 0(.0) | 12(100.0) | |
| 전체 | | 212(38.0) | 48(8.6) | 136(24.4) | 152(27.2) | 10(1.8) | 558(100.0) | |

* p<.05 *** p<.001

(2) 선생님의 말씨 선호

<표Ⅳ-24>와 같이 선생님의 말씨 선호에 대한 전체 응답을 살펴보면 항상 평어 사용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39.8%로 가장 높았으며, 수업시간에만 경어를 사용하고 그 외에는 평어를 사용(22.0%)과 주로 경어를 사용하지만 개인적으로 평어를 사용(21.9%)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별($\chi^2=60.082$, $df=4$, $p<.001$)과 성별($\chi^2=12.657$, $df=4$, $p<.05$) 그리고 지역별($\chi^2=11.593$, $df=4$, $p<.05$)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학년별($\chi^2=3.459$, $df=4$, $p>.05$), 연령별($\chi^2=14.566$, $df=12$, $p>.05$)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대상별로 살펴보면 학생(52.2%)은 항상 평어 사용을 선호하는 반면에 학부모(33.8%)는 주로 경어를 사용하지만 개인적으로 평어 사용을 선호하여 서로 다르게 인식하였다. 성별의 경우 남자(46.4%)가 여자(35.3%)보다 항

상 평어 사용에 높게 응답을 하였다. 지역별의 경우 읍·면지역(45.0%)이 시지역(34.6%)보다 항상 평어 사용에 높게 응답을 하였다. 이러한 반응 결과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평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친근감을 느낀다고 생각하는 반면 학부모들은 학생들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주로 경어를 사용하기를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Ⅳ-24> 선생님의 말씨 선호

사례수(%)

| 구 분 | | 항상 경어(높임 말)사용 | 항상 평어(보통 말)사용 | 수업시간 엔경어 그외엔 평어 | 주로경어 를 사용, 개인적으 론 평어 | 기타 | 전체 | χ^2 df p |
|-----|-------|---------------------|---------------------|--------------------------|-------------------------------|--------|------------|-------------------------|
| 대상별 | 학생 | 44(14.9) | 154(52.2) | 58(19.7) | 33(11.2) | 6(2.0) | 295(100.0) | 60.082 4 .000 *** |
| | 학부모 | 39(14.8) | 68(25.9) | 65(24.7) | 89(33.8) | 2(.8) | 263(100.0) | |
| 성별 | 남 | 38(17.0) | 104(46.4) | 40(17.9) | 38(17.0) | 4(1.8) | 224(100.0) | 12.657 4 .013 * |
| | 여 | 45(13.5) | 118(35.3) | 83(24.9) | 84(25.1) | 4(1.2) | 334(100.0) | |
| 지역 | 시지역 | 40(14.3) | 497(34.6) | 75(26.8) | 62(22.1) | 6(2.1) | 280(100.0) | 11.593 4 .021 * |
| | 읍·면지역 | 43(15.5) | 125(45.0) | 48(17.3) | 60(21.6) | 2(.7) | 278(100.0) | |
| 학년 | 5학년 | 18(12.1) | 80(53.7) | 33(22.1) | 16(10.7) | 2(1.3) | 149(100.0) | 3.459 4 .484 |
| | 6학년 | 26(17.8) | 74(50.7) | 25(17.1) | 17(11.6) | 4(2.7) | 146(100.0) | |
| 연령별 | 20대 | 0(.0) | 1(20.0) | 3(60.0) | 1(20.0) | 0(.0) | 5(100.0) | 14.566 12 .266 |
| | 30대 | 12(13.2) | 29(31.9) | 24(26.4) | 26(28.6) | 0(.0) | 91(100.0) | |
| | 40대 | 24(15.5) | 33(21.3) | 35(22.6) | 61(39.4) | 2(1.3) | 155(100.0) | |
| | 50대 | 3(25.0) | 5(41.7) | 3(25.0) | 1(8.3) | 0(.0) | 12(100.0) | |
| 전체 | | 83(14.9) | 222(39.8) | 123(22.0) | 122(21.9) | 8(1.4) | 558(100.0) | |

* $p < .05$ *** $p < .001$

(3) 선생님의 복장 유형

<표Ⅳ-25>와 같이 선생님의 복장 유형에 대한 전체 응답을 살펴보면 감소하고 단정한 옷차림이 좋다는 응답이 49.5%로 가장 높았으며, 편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편한 캐주얼 옷차림(22.6%)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별($\chi^2=54.625$, $df=4$, $p<.001$)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성별($\chi^2=4.638$, $df=4$, $p>.05$), 지역별($\chi^2=6.007$ $df=4$, $p>.05$), 학년별($\chi^2=4.710$,

df=4, $p>.05$), 연령별($\chi^2=12.207$, df=12, $p>.05$)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대상별로 살펴보면 학생(25.4%)이 학부모(11.4%)보다 옷차림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반응 결과는 학부모들은 선생님의 복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반면에 선생님의 복장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학생들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Ⅳ-25> 선생님의 복장 유형

사례수(%)

| 구 분 | | 항상정장 옷차림 | 검소하고 단정한 옷차림 | 편한 캐주얼 옷차림 | 눈에 띄는 옷차림 | 별로 중요하지 않음 | 기타 | 전체 | χ^2 df p |
|-------------|-----------|-------------|--------------------|------------------|-----------------|------------------|--------|------------|-------------------------|
| 대 상 별 | 학생 | 25(8.5) | 106(35.9) | 76(25.8) | 7(2.4) | 75(25.4) | 6(2.0) | 295(100.0) | 54.625 5 .000 *** |
| | 학부모 | 13(4.9) | 170(64.6) | 50(19.0) | 0(.0) | 30(11.4) | 0(.0) | 263(100.0) | |
| 성 별 | 남 | 16(7.1) | 102(45.5) | 50(22.3) | 4(1.8) | 50(22.3) | 2(.9) | 224(100.0) | 4.638 5 .462 |
| | 여 | 22(6.6) | 174(52.1) | 76(22.8) | 3(.9) | 55(16.5) | 4(1.2) | 334(100.0) | |
| 지 역 | 시지역 | 14(5.0) | 150(53.6) | 57(20.4) | 4(1.4) | 52(18.6) | 3(1.1) | 280(100.0) | 6.007 5 .306 |
| | 읍·면 지역 | 24(8.6) | 126(45.3) | 69(24.8) | 3(1.1) | 53(19.1) | 3(1.1) | 278(100.0) | |
| 학 년 | 5학년 | 14(9.4) | 57(38.3) | 40(26.8) | 2(1.3) | 32(21.5) | 4(2.7) | 149(100.0) | 4.710 5 .452 |
| | 6학년 | 11(7.5) | 49(33.6) | 36(24.7) | 5(3.4) | 43(29.5) | 2(1.4) | 146(100.0) | |
| 연 령 별 | 20대 | 1(20.0) | 2(40.0) | 2(40.0) | 0(.0) | 0(.0) | 0(.0) | 5(100.0) | 12.207 9 .202 |
| | 30대 | 4(4.4) | 57(62.6) | 15(16.5) | 0(.0) | 15(16.5) | 0(.0) | 91(100.0) | |
| | 40대 | 8(5.2) | 105(67.7) | 30(19.4) | 0(.0) | 12(7.7) | 0(.0) | 155(100.0) | |
| | 50대 | 0(.0) | 6(50.0) | 3(25.0) | 0(.0) | 3(25.0) | 0(.0) | 12(100.0) | |
| 전체 | | 38(6.8) | 276(49.5) | 126(22.6) | 7(1.3) | 105(18.8) | 6(1.1) | 558(100.0) | |

*** $p<.001$

(4) 훌륭한 선생님의 유형 유형

<표Ⅳ-26>와 같이 훌륭한 선생님의 유형에 대한 전체 응답을 살펴보면 54.8%가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는 선생님을 선호하였고, 바른 인격을 소유한 선생님(15.6%)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별($\chi^2=85.740$, df=4, $p<.001$)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성별($\chi^2=9.341$, df=4,

p>.05), 지역별($\chi^2=5.792$ df=4, p>.05), 학년별($\chi^2=5.629$, df=4, p>.05), 연령별($\chi^2=14.990$, df=12, p>.05)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표Ⅳ-26> 훌륭한 선생님의 유형

사례수(%)

| 구 분 | | 지식이 많고 공부를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 | 뛰어난 특기 소유한 선생님 | 경험이 풍부한 선생님 | 바른 인격을 소유한 선생님 | 학생들에대 한 관심과 사랑이 있는 선생님 | 기타 | 전체 | χ^2 df p |
|-------------|-----------|------------------------------------|-------------------------|-------------------|-------------------------|------------------------------------|---------|------------|-------------------------|
| 대상 별 | 학생 | 53(18.0) | 13(4.4) | 55(18.6) | 23(7.8) | 139(47.1) | 12(4.1) | 295(100.0) | 85.740 5 .000 *** |
| | 학부모 | 20(7.6) | 1(4) | 9(3.4) | 64(24.3) | 167(63.5) | 2(8) | 263(100.0) | |
| 성 별 | 남 | 37(16.5) | 5(2.2) | 33(14.7) | 31(13.8) | 112(50.0) | 6(2.7) | 224(100.0) | 9.341 5 .096 |
| | 여 | 36(10.8) | 9(2.7) | 31(9.3) | 56(16.8) | 194(58.1) | 8(2.4) | 334(100.0) | |
| 지 역 | 시지역 | 37(13.2) | 4(1.4) | 35(12.5) | 49(17.5) | 150(53.6) | 5(1.8) | 280(100.0) | 5.792 5 .327 |
| | 읍·면 지역 | 36(12.9) | 10(3.6) | 29(10.4) | 38(13.7) | 156(56.1) | 9(3.2) | 278(100.0) | |
| 학 년 | 5학년 | 25(16.8) | 7(4.7) | 25(16.8) | 14(9.4) | 75(50.3) | 3(2.0) | 149(100.0) | 5.629 5 .344 |
| | 6학년 | 28(19.2) | 6(4.1) | 30(20.5) | 9(6.2) | 64(43.8) | 9(6.2) | 146(100.0) | |
| 연 령 별 | 20대 | 1(20.0) | 0(0) | 1(20.0) | 0(0) | 3(60.0) | 0(0) | 5(100.0) | 14.990 15 .452 |
| | 30대 | 3(3.3) | 0(0) | 3(3.3) | 26(28.6) | 59(64.8) | 0(0) | 91(100.0) | |
| | 40대 | 14(9.0) | 1(6) | 5(3.2) | 37(23.9) | 96(61.9) | 2(1.3) | 155(100.0) | |
| | 50대 | 2(16.7) | 0(0) | 0(0) | 1(8.3) | 9(75.0) | 0(0) | 12(100.0) | |
| 전체 | | 73(13.1) | 14(2.5) | 64(11.5) | 87(15.6) | 306(54.8) | 14(2.5) | 558(100.0) | |

*** p<.001

대상별로 살펴보면 학부모(63.5%)가 학생(47.1%)보다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는 선생님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지식이 많고 공부를 잘 가르쳐 주는 선생님에 대한 응답에 학생(18.0%)이 학부모(7.6%)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반응 결과는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선생님이 가져야할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잘 나타내고 있다. 또한 학생들이 학업 성적에 대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종합적 논의

본 연구에서는 바람직한 초등학교 교사의 교수·학습지도, 생활지도, 학급경영면에서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또한 바람직한 교사의 자질면에서 개인적 특성에 대한 인식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가. 교수·학습지도에 대한 인식

초등학교 교사의 교수·학습지도에 대한 인식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지도 방법으로 학생들은 재미있게 수업을 지도해 주는 교사를 선호하였고 학부모들은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교사를 선호하고 있었다. 학생들의 경우 선행 연구와 다른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김용달(2000)은 학생·학부모 모두 쉽게 이해하도록 지도하는 교사를 선호한다고 하였으며, 강유진(2005)은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안내해 주는 교사를 바람직한 교사로 인식한다고 하였다. 이는 학생들의 경우 많은 과외 활동으로 인하여 반복되는 학습에 대한 부담감으로 학교에서의 학습 활동의 목적을 떠나 즐거운 학교생활을 더 바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과제 제시 방법으로 학생들은 일주일에 2~3번 정도 내주는 선생님이 좋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학부모들은 가정 학습을 필요로 하는 것에 한해서만 과제를 내주는 선생님을 좋아하였다. 장혜정(2002)의 연구에서는 학생·학부모 모두 적당한 과제를 내주는 교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경우 유사한 인식을 보이고 있었으나 학부모의 경우 오히려 필요한 경우에만 과제 학습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과제가 학부모들의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고 과제 학습에 대한 실효성에 회의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학생들은 과제를 내주지 않

는 선생님을 좋아할 것이라 생각하였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매우 특이할 만하다.

셋째, 독서 지도 방법으로 선행 연구들과 유사하게 학생의 경우 아동 스스로 자유롭게 읽게 하는 선생님을 선호하는 반면에 학부모의 경우 책을 읽고 간단하게 느낀 점을 정리하게 하는 선생님을 선호하고 있었다. 이는 학생의 경우 독서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반면에 학부모의 경우 독서 후 정리를 통해 독서를 통한 학습 효과에 더 의미를 두는 것으로 인식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진다.

넷째, 시험 평가 후 처리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들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학생들은 개별로 알려 주기를 바라고 있었으나 학부모들은 부모님께 통지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는 시험 결과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학생과 자녀의 성적을 알고 싶어하는 학부모의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교사의 적절한 처리가 요구된다.

다섯째, 학습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특기와 소질을 향상시켜 주기를 바라는 반면 학부모들은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쌓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류선희(2004)의 연구에서는 학습 활동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얻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발표를 시킬 때는 학부모의 경우 골고루 시키는 선생님이 높은 응답을 보였고, 학생들의 경우 희망한 학생을 우선으로 발표시키는 선생님이 높게 응답하였다. 장혜정(2002)의 연구에서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학부모들의 교육적인 차원에서의 발표에 대한 생각과 학생들의 발표 의지에 따른 차이로 여겨진다.

일곱째, 아침 자습 시간에 학생들은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을 하기를 바라고 있으나 학부모들은 독서를 하도록 지도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류선희(2002)의 연구에서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특이할 만한 점은 20대와 30대의 학부모의 경우 주제를 정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게 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는 세대간의 자습 시간 활용에 대한 생각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고 보여진다.

여덟째, 일기지도는 학생의 경우 류선희(2004)의 연구와 같이 일기를 자율에 맡기자는 의견을 나타냈으며, 학부모의 경우 장혜정(2002)의 연구와 같이 매일매일 꼭 쓰도록 지도하기를 바라는 학부모들의 상반된 인식이 나타났다. 그런데 일기를 읽고 난 후 학생들은 선생님의 지도를 바라고 있었고, 학부모들은 특별히 지도해야 할 경우만 지도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일기의 인권 침해에 대해 대다수의 학부모는 인권 침해로 보지 않고 있으며, 학생들의 경우 일기 쓰기를 싫어하지만 만약 일기를 써야한다면 선생님의 지도를 바라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나. 생활지도에 대한 인식

초등학교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한 인식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 지도 방법으로 학생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도록 지도해 주는 선생님을 학부모는 예의바르고 인성이 바른 사람이 되도록 지도하는 선생님을 더 선호하였다. 교사는 학생들을 바른 인성과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도록 지도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체벌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적당한 체벌은 허용해야 한다는 반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같게 나타났다. 학생, 학부모 모두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바라기보다 합리적인 기준으로 합당한 체벌을 바라고 있음을 알아야 하겠다.

셋째, 급식 지도 방법으로 싫어하는 음식이라도 조금만 먹게 하는 선생님에 대한 응답이 공통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생들이 건강을 위해서 먹기 싫은 것도 먹는 것이 좋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을 보여준다. 급식 지도는 본 연구에서 활용한 선행 연구에는 없는 내용으로 요즘 급식 문제가 학교 현장에서 많이 대두되고 있어서 인식을 조사하게 되었다.

넷째, 학생에 대한 교사의 태도와 잘못된 행동의 지도 방법에서 김용달

(2000)의 연구와 같이 학생들은 친절하고 자상하게 대해주는 선생님을 가장 선호하였고, 학부모들은 공평하게 대해주는 선생님을 가장 선호하였다. 그리고 학생·학부모 모두 잘못된 행동에 대해 개별 지도를 하는 선생님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부모들이 자녀의 차별적 대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하겠으며, 잘못된 행동에 대해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공개적으로 지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깊이 고려해 볼 만하다.

다섯째, 학생과 상담을 할 때 학생의 경우 생활 태도에 관한 문제를 가장 선호하고 있었으며, 학부모의 경우 장래에 관한 문제에 대한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류선희(2004)의 연구에서 학생 집단은 친구 관계에 관한 문제를 가장 선호했다고 하였는데 인식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경우 성적에 관한 문제도 상담받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성적에 대한 부담감을 엿볼 수 있다.

다. 학급경영에 대한 인식

초등학교 교사의 학급경영에 대한 인식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생님이 학급 경영에서 가장 힘써야 할 일이 예절 및 기본 생활 습관 지도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혜정(2002)의 연구에서는 학생의 경우 친구 관계 및 협동 생활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 성적 향상 보다 예절 및 기본 생활 습관 지도에 더 힘써야 하겠다.

둘째,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에 대해서는 학생들은 친구처럼 다정하게 지내는 관계를 학부모들은 선생님이 엄격함을 유지하면서 학생과 대화하는 관계를 선호하였다. 장혜정(2002)의 연구에서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교사가 때로는 엄격하고 때로는 다정한 친구가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할 것이다.

셋째, 자리 배치 방법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들과 같이 학생들은 자유롭게

있는 것을 학부모들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하는 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정된 자리 배치가 아니라 기본 틀은 유지한 채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학부모님과 선생님의 의견 교환 방법으로는 가정 통신문(알림장이나 편지) 방법을 가장 선호하였다. 김용달(2000)의 연구에서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학부모들이 서로 직접 만나는 것보다 부담스럽지 않는 방법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다섯째, 친구와 싸웠을 때 혼을 내는 것 보다 말로 잘못을 깨우쳐 주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 학생들의 경우 싸움이 흔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말로 잘못을 깨우쳐 주기를 바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섯째, 학급 임원 임명 방법으로는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시행해 오던 1,2학기로 나누어 두 차례 임명하여 활동하게 하는 방법을 선호하였다. 이는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만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기별로 임명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많은 것으로 보여 진다.

라. 개인적인 특성에 대한 인식

초등학교 교사의 개인적인 특성에 대한 인식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생님의 성격으로 학생들은 유머와 재치가 있는 선생님을 선호하였고, 학부모들은 학생들을 공정하게 대해 주는 선생님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혜정(2002)의 연구에서는 학부모의 경우 사랑이 넘치고 의욕적인 교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식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학부모들이 자기의 자녀가 학교에서 공정하게 대접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선생님의 말씨로 장혜정(2002), 류선희(2004)의 연구에서와 같이 학생은 항상 평어를 사용에 높은 응답을 보였고, 학부모는 주로 경어를 사용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평어를 사용에 높은 응답을 보였다. 학생들은 선생님

이 윗사람이라는 생각과 친숙한 관계를 위해서 평어 사용을 기대하고 있지만 학부모들은 학생들을 좀더 존중해 주는 차원에서 주로 경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선생님의 옷차림에 대해서는 검소하고 단정한 옷차림을 공통적으로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할 만한 것은 학생의 경우 선생님의 옷차림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선행 연구들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격식 보다는 단정하고 학생들과 활동하기에 편한 옷차림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넷째, 어떤 선생님이 가장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지에 대한 응답에 선행 연구들과 같이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는 선생님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교사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변함없이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V. 요약 및 결론

1. 요약

본 연구는 바람직한 초등학교 교사의 역할과 자질에 관련하여 교수·학습지도에 대한 인식, 생활지도에 대한 인식, 학급경영에 대한 인식, 개인적 특성에 대하여 분석함으로써 바람직한 초등학교 교사의 역할과 자질에 대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을 알아보는 데 있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참고문헌과 바람직한 초등학교 교사의 역할과 자질에 관련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기대에 관한 인식을 설문 조사를 통하여 알아보았다.

설문지는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초등학교 6개교 5·6학년 학생 300명과 학부모 300명, 총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으며, 조사한 자료는 대상별, 성별, 지역별, 학년별, 연령별로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바람직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인식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교차분석 χ^2 을 실시하여 변인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얻은 연구의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교수·학습지도에 대한 인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지도 방법으로 학생들은 재미있게 수업을 지도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으나 학부모들은 다양한 예를 들어가며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를 더 바라고 있었다.

둘째, 과제 제시 방법으로 학생들은 일주일에 2~3번 정도 내주는 선생님이 좋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학부모들은 가정 학습을 필요로 하는 것에 한해서만 과제를 내주는 선생님을 좋아하였다.

셋째, 독서 지도 방법으로 학생과 남자 그리고 읍·면지역의 경우 아동 스스로 자유롭게 읽게 하는 선생님을 선호하는 반면에 학부모, 여자 그리

고 시지역의 경우 책을 읽고 간단하게 느낀 점을 정리하게 하는 선생님을 선호하고 있었다.

넷째, 학생들은 시험 평가 후 개별로 알려 주기를 바라고 있었으나 학부모들은 부모님께 통지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다섯째, 학생들은 학습을 통해 특기와 소질을 향상시켜 주기를 바라는 반면 학부모들은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쌓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여섯째, 발표를 시킬 때는 학부모의 경우 골고루 시키는 선생님이 높은 응답을 보였고, 학생들의 경우 희망한 학생을 우선으로 발표시키는 선생님이 높게 응답하였다.

일곱째, 아침 자습 시간에 학생들은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을 하기를 바라고 있으나 학부모들은 독서를 하도록 지도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20대와 30대의 학부모의 경우 주제를 정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게 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여덟째, 일기를 자율에 맡기자는 학생들의 생각과 매일매일 꼭 쓰도록 지도하기를 바라는 학부모들의 상반된 인식이 나타났다. 그런데 일기를 읽고 난 후 학생들은 선생님의 지도를 바라고 있었고, 학부모들은 특별히 지도해야 할 경우만 지도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생활지도에 대한 인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 지도 방법으로 학생과 남자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도록 지도해 주는 선생님을 학부모와 여자는 예의바르고 인성이 바른 사람이 되도록 지도하는 선생님을 더 선호하였다.

둘째, 체벌의 경우 경우에 따라서 적당한 체벌은 허용해야 한다는 반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셋째, 급식 지도 방법으로 싫어하는 음식이라도 조금만 먹게 하는 선생님에 대한 응답이 공통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넷째, 학생들은 친절하고 자상하게 대해주는 선생님을 가장 선호하였고, 학부모들은 공평하게 대해주는 선생님을 가장 선호하였다.

다섯째, 학생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개별 지도를 하는 선생님에 대한 응

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섯째, 상담을 할 때 생활 태도에 관한 문제를 가장 선호하고 있었으며, 학부모의 경우 장래에 관한 문제에 대한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학급경영에 대한 인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생님이 학급 경영에서 가장 힘써야 할 일이 예절 및 기본 생활 습관 지도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에 대해서 학생들은 친구처럼 다정하게 지내는 관계를 학부모들은 선생님이 엄격함을 유지하면서 학생과 대화하는 관계를 선호하였다.

셋째, 자리 배치 방법에 대해 학생들은 자유롭게 앉는 것을 학부모들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하는 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부모님과 선생님의 의견 교환 방법으로는 가정 통신문(알림장이나 편지) 방법을 가장 선호하고 있었다.

다섯째, 친구와 싸웠을 때 혼을 내는 것 보다 말로 잘못을 깨우쳐 주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학급 임원 임명 방법으로는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시행해 오던 1, 2학기 나뉘어 두 차례 임명하여 활동하게 하는 방법을 선호하였다.

개인적 특성에 대한 인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생님의 성격으로 학생들은 유머와 재치가 있는 선생님을 선호하였고, 학부모들은 학생들을 공정하게 대해 주는 선생님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선생님의 말씨로 학생은 항상 평어 사용에 높은 응답을 보였고, 학부모는 주로 경어를 사용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평어를 사용하는 것에 높은 응답을 보였다.

셋째, 선생님의 옷차림으로는 검소하고 단정한 옷차림을 공통적으로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어떤 선생님이 가장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지에 대한 응답에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는 선생님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결론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교수·학습지도자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재미있게 수업을 이끌어 가는 것을 가장 좋아하고 있으며, 책을 읽고 난 후에는 간단하게 느낀 점을 정리하게 하는 지도가 필요하다. 시험 평가를 실시 한 후 결과 처리는 개별로 알려 주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며, 학습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쌓아주고, 개인의 특기와 소질을 계발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발표 진행은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골고루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아침 자습 시간에는 스스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초등학생들의 일기는 학습과 생활지도 측면에서 매일은 아니더라도 정기적으로 작성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교사는 일기지도를 실시한 후 잘한 점이나 잘못된 점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생활지도자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학생들을 공평하게 대하고, 예의바르고 인성이 바른 사람이 되도록 지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체벌은 경우에 따라 적당히 필요하다. 급식 지도는 싫어하는 음식이라도 조금 만이라도 먹게하는 것이 좋으며, 학생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공개적으로 지도하지 말고 개별로 조용히 지도하는 것이 좋다. 상담에 있어서는 생활 태도에 관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지도해야 한다.

셋째, 학급경영에 있어서 예절 및 기본 생활 습관 지도에 가장 힘써야 하며, 교사는 엄격함을 유지하면서 학생과 대화를 자주 해야 한다. 자리 배치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리를 정해주는 것이 좋으며, 학부모와의 의견 교환은 가정통신문(알림장이나 편지)이 가장 적당하다. 친구와 싸웠을 때는 혼내는 것 보다 잘못을 깨우쳐 주어야 하고, 학급 임

원은 학기별로 한번씩 임명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

넷째, 교사의 개인적 특성면에서 살펴보면 성격은 유머와 재치가 있으면 좋고, 용어는 경어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평어를 사용하는 것에 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옷차림은 격식에 얽매일 필요 없이 검소하고 단정하게 입으면 된다. 가장 훌륭하다고 인식되는 교사는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넘치는 교사이다.

교사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과 자질은 매우 다양하다. 모든 것을 갖추려는 것은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학생들을 공평하게 대하고 성적 우선이 아닌 바른 인성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지도한다면 직접적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학교 교육과 교사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결과를 보면 바람직한 교사의 역할과 자질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이 대체적으로 비슷하지만, 세부적인 측면에서 보면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 서로 다른 인식의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있었다. 이는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과 학부모가 원하는 교육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며, 이를 동시에 충족시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교사는 세부 영역별로 학생과 학부모가 바라는 점을 잘 파악하고 이를 교육에 적절하게 적용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사의 역할과 자질 중에서 기본이 되며 최근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본질적인 요소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시대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들도 있었지만, 사회의 변화에 맞게 교육에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수많은 교사의 역할과 자질 중에서 일부분에 대한 연구로 좀 더 세분화된 영역에 대한 연구,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 교사들에 대한 인식 연구, 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 등이 이루어질 때 바람직한 초등학교 교사의 역할과 자질에 대한 포괄적 자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저 서

- 기순신, 교사론, 서울 : 학지사, 2001.
- 김기태, 조평호, 미래지향적 교사론, 서울 : 교육과학사, 2004.
- 김봉수, 초등교사론, 서울 : 형설출판사, 1993.
- 김영우, 교사의 자질과 교사교육의 개혁방향, 서울 : 도서출판 하우, 2001.
- 김영철 외, 정보지식사회에 따른 학제 다양화 방안,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2004.
- 김정일 외, 교육학개론, 서울 : 학지사, 2000.
- 류동훈, 교사론, 서울 : 창지사, 2004.
- 서정화 외, 학교 경영, 서울 : 갑을출판사, 1989.
- 이병진, 현장교사론, 서울 : 양서원, 1998.
- 정영수 외, 교사와 교육, 서울 : 문음사, 1998.
- 정일환, 권상혁, 교사론, 서울 : 교육출판사, 1994.
- 최희선, 학교 · 학급경영, 서울 : 형설출판사, 2004.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론, 서울 : 교육과학사, 2004.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예비교원을 위한 교사론, 서울 : 교육과학사, 1997.
- 한방교, 윤길근, 인간과 교육의 이해, 서울 : 동문사, 2001.
- 한숙경, 新 교사론, 서울 : 학지사, 2003.
- 허영부, 현대교육학 개론, 서울 : 학문사, 1998.
- 황기우, 21세기 교사의 역할, 서울 : 원미사, 1998.

논 문

- 강유진(2005). 바람직한 초등학교 교사상에 대한 교육 관련 집단들의 인식 비교.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강은희(2001). 초등학교 학생 · 학부모가 바라는 바람직한 담임교사상.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고재길(2002). 바람직한 초등학교 교사상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비교.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기환(2004). 초등학생 학부모가 기대하는 담임교사상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영미(2004).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의 바람직한 교사상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용달(2000). 초등교사의 역할에 대한 교사·학생·학부모의 인식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류묘희(2001). 초등학교 담임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경영관리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류선희(2004). 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가 기대하는 교사상에 대한 비교 분석.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영미(2001). 초등학교 학부모가 기대하는 학급담임 교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영숙(2003). 초등학교 학부모가 기대하는 학급담임교사의 역할수행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혜정(2002). 교사·학부모·학생이 기대하는 초등학교 교사상.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홍창의(2004). 초등학교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기대 연구.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일문(2001). 바람직한 교사상. 아동교육 제10권 제2호. pp.1-10.
- 남경희(1999). 21세기 사회에 바람직한 교사상. 서울교육 157. pp.30-33.
- 서정화(2001). 사회변화와 바람직한 교사상. 교육마당21 231. pp.36-39.

ABSTRACT

A Study of Students' and Parents' Perception about the Role and Quality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Shin, Dong-Ryong

Major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Gyeongju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Jeon, Je Sang)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is to investigate how students and their parents think about the role and quality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A survey study was administered on the basis of literature review.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300 5th and 6th graders and 300 parents respectively in Gyeongju Area. 295 students and 263 parents responded to the questionnaires. Frequency and cross-tab analysis were applied and the level of significance was tested at .05, .01, and .001 respectivel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students favored classes led in an excited manner. They expected to be exposed to various kinds of experiences and build up specialities and qualifications. It was also desired that as many students as possible need to be given equal opportunities for presentation. It was also advised that students need to be given free time during self-study period in the morning. Finally, students need to be asked to keep diary on a regular basis, though not everyday with the understanding that good deeds or wrong deeds need to be pointed out by the teacher.

Second, it was desired, above all, that each student needs to be treated fairly and be taught to be courteous and righteous personalities.

It was perceived that a decent amount of corporal punishment was necessary. Besides, a good eating habit needs to be fostered so that all the students need to eat even some of disagreeable foods.

Finally, private personal guidance was favored against public guidance.

Third, it was thought that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 classroom management was instruction of manners and basic daily customs. It was hoped that teachers keep dialogic relations with students while showing a certain degree of strictness. Seating arrangement needs to be determined with many things in consideration. The most favored ways of communication with parents were using "letters or memos to the parents". And finally, it was hoped that when students fight with each other, teachers need to persuade them into realization of what was wrong on each side rather than taking some disciplinary measures.

Fourth, as for teacher's characters, that of humor and wit was most favored. Teachers are expected to be dressed in a simple informal manner. It was perceived that the best teacher was those with f caring

and loving heart toward students.

In conclusion, the roles and quality of teachers are diverse and it would be impossible for a teacher to be clothed in all those roles and capacities. However, it is perceived by students and parents that they respect those teachers who treat students with fairness, teach them not for academic scores but for the right personalities showing love and care toward them. Therefore, it can be safely said that when teachers make efforts to make themselves become similar to the level expected of by parents and students will they gain trust from them as to the matters of school business and the roles of teachers in the schools. It is hop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serve as reference materials for school teachers in terms of their professional development.

부 록
학생들이 기대하는 좋은 선생님의 관한 설문지(학생용)

2006. 4.
경주대학교 교육대학원

1. 성별 : ____① 남 ____② 여
2. 지역 : ____① 시 지역 ____② 읍·면 지역
3. 학년 : ____① 5학년 ____② 6학년

▶ 나의 생각과 거의 일치하는 번호의 ____ 위에 v 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v 표는 한 문제당 하나씩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치하는 내용이 없을 때는 기타의 () 안에 직접 적어 주십시오

1. 학습 지도 방법으로 어떤 선생님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까?
 ____①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해결하도록 이끄는 선생님
 ____② 다양한 예를 들어가며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선생님
 ____③ 학생들이 재미있게 수업을 하게 해주는 선생님
 ____④ 중요한 문제를 찾아 요점을 잘 지도해 주는 선생님
 ____⑤ 기타()

2. 숙제(과제)를 어떤 방법으로 제시하는 선생님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까?
 ____① 매일 적당히 내주는 선생님

- ___② 학습지도상 가정학습을 필요로 하는 것에 한해서만 과제를 내주는 선생님
 ___③ 스스로 하도록 안내하고 과제를 내주지 않는 선생님
 ___④ 일주일에 2-3번 정도 내주는 선생님
 ___⑤ 기타()

3. 독서 지도는 어떻게 하는 선생님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까?

- ___① 아동 스스로 자유롭게 읽게 하는 선생님
 ___② 독서량을 정해주고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는 선생님
 ___③ 책을 읽고 나서 독후감을 쓰게 하는 선생님
 ___④ 책을 읽고 간단하게 느낀 점을 정리하게 하는 선생님
 ___⑤ 기타()

4. 시험평가를 한 후 어떻게 처리하는 선생님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까?

- ___① 학생 개별로 알려주는 선생님
 ___② 알리지 않고 지도하는 선생님
 ___③ 학급 전체에 공개하는 선생님
 ___④ 부모님께 통지해 주는 선생님
 ___⑤ 기타()

5. 학습을 통해 어떤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선생님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까?

- ___① 많은 지식 습득
 ___② 생각하는 능력
 ___③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
 ___④ 아동의 특기와 소질
 ___⑤ 기타()

6. 발표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는 선생님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까?

- ___① 희망한 아동을 우선으로 발표시키는 선생님
 ___② 희망을 우선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지명하는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선생님
 ___③ 지명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일어나서 발표하도록 하는 선생님
 ___④ 발표 아동을 지명하여 끌고루 시키는 선생님
 ___⑤ 기타()

7. 아침 자습은 어떻게 지도하는 선생님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까?

- ___① 스스로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하는 선생님
 ___② 독서를 하도록 지도하는 선생님
 ___③ 교과학습과 관련된 문제를 풀게 하는 선생님
 ___④ 주제를 정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게 하는 선생님
 ___⑤ 기타()

8. 일기 쓰기 지도는 어떻게 하는 선생님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까?

- ___① 매일 매일 꼭 쓰도록 지도해 주는 선생님
 ___② 2-3일에 한번씩 쓰도록 하는 선생님

- ___③ 개인 생활이므로 자율에 맡기고 검사하지 않는 선생님
 ___④ 자율적으로 쓰게 하고 가끔씩 검사는 하는 선생님
 ___⑥ 기타()

9. 일기 내용 지도는 어떻게 하는 선생님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까?

- ___① 읽어보고 참고만 하는 선생님
 ___② 읽어보고 일일이 지도하는 선생님
 ___③ 읽어보고 잘한 점이나 잘못된 점만 지도해 주는 선생님
 ___④ 읽어보고 특별히 지도할 경우가 있을 때만 지도하는 선생님
 ___⑤ 기타()

II. 생활지도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다음 문항을 읽고 나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의 ___위에 v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10. 학생들을 어떤 사람이 되도록 지도해 주는 선생님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까?

- ___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되도록 지도해 주는 선생님
 ___②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도록 지도해 주는 선생님
 ___③ 예의바르고 인성이 바른 사람이 되도록 지도하는 선생님
 ___④ 자기 주도적이고 개성이 뚜렷한 사람이 되도록 지도하는 선생님
 ___⑤ 기타()

11. 선생님의 체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___① 체벌은 없어져야 함.
 ___② 경우에 따라서 적당한 체벌은 허용해야함.
 ___③ 체벌 대신 청소나 봉사활동 등 다른 방법으로 지도해야 함.
 ___④ 교육상 체벌은 반드시 필요함
 ___⑤ 기타()

12. 급식 지도는 어떻게 하는 선생님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까?

- ___①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먹게 하는 선생님
 ___② 급식을 남기지 못하게 하는 선생님
 ___③ 싫어하는 음식이라도 조금만이라도 먹게 하는 선생님
 ___④ 급식을 남겨도 되는 날을 정해 특정한 날만 남기게 하는 선생님
 ___⑤ 기타()

13. 학생을 어떻게 대해 주는 선생님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까?

- ___① 공평하게 대해주는 선생님
 ___② 엄하게 대해주는 선생님
 ___③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 선생님
 ___④ 친절하고 자상하게 대해주는 선생님
 ___⑤ 기타()

14.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지도해 주는 선생님이 가장 좋습니까?

- ___ ①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도하는 선생님
___ ② 개별 지도를 하는 선생님
___ ③ 부모님께 알려 지도하도록 하는 선생님
___ ④ 주의만 주고 지나가는 선생님
___ ⑤ 기타()

15. 상담을 할 때 어떤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는 선생님이 가장 좋습니까?

- ___ ① 성적에 관한 문제
___ ② 친구에 관한 문제
___ ③ 건강에 관한 문제
___ ④ 장래에 관한 문제
___ ⑤ 생활 태도에 관한 문제
___ ⑥ 기타()

Ⅲ. 학급경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다음 문항을 읽고 나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의 ___위에 v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16. 선생님이 학급경영에 있어 가장 힘써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___ ① 학업 성적 향상
___ ② 예절 및 기본 생활 습관 지도
___ ③ 친구 관계 및 협동 생활
___ ④ 안전과 건강지도
___ ⑤ 기타()

17.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___ ① 선생님의 지시에 학생이 따르는 관계
___ ② 친구처럼 다정하게 지내는 관계
___ ③ 선생님이 엄격함을 유지하면서 학생과 대화하는 관계
___ ④ 선생님의 생각보다는 학생들의 생각을 더 중요시하는 관계
___ ⑤ 기타()

18. 학생들의 자리 배치는 어떻게 하는 선생님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까?

- ___ 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리를 정해 주는 선생님
___ ② 남자와 여자를 짝으로 하여 앉게 하는 선생님
___ ③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앉게 하는 선생님
___ ④ 규칙을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앉게 하는 선생님
___ ⑤ 기타()

19. 학부모님과 선생님이 의견을 나눌 때 어떤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까?

- ___ ① 가정 통신문(알림장이나 편지)
___ ② 전화 연락

- ___③ 부모님의 학교방문
 ___④ 가정 방문
 ___⑤ 이 메일이나 문자메세지로 연락
 ___⑥ 기타()

20. 친구와 싸웠을 때 어떻게 처리해 주시는 선생님이 가장 좋습니까?

- ___① 두 사람 모두 혼내는 선생님
 ___② 누가 더 잘못 했는지 따져서 가려주는 선생님
 ___③ 싸운 사실을 부모님께 알려주는 선생님
 ___④ 말로 잘못을 깨우쳐 주는 선생님
 ___⑤ 기타()

21. 학급 임원은 어떤 식으로 임명하여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 ___① 1, 2학기로 나누어 두 차례 임명하여 활동하게 함
 ___② 월 별로 반장을 임명하여 활동하게 함
 ___③ 반장제를 두지 않음
 ___④ 1주일씩 돌아가면서 임명하여 많은 학생이 활동하게 함
 ___⑤ 기타()

IV. 개인적 특성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다음 문항을 읽고 나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의 ___ 위에 v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22. 선생님의 성격이 어떠했으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까?

- ___① 유머와 재치가 있는 선생님
 ___② 엄격하고 책임감 있는 선생님
 ___③ 학생들을 공정하게 대해 주는 선생님
 ___④ 학생들에게 다정하고 친절하게 대해 주는 선생님
 ___⑤ 기타()

23. 선생님이 어떤 말씨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 ___① 항상 경어(높임말)을 사용
 ___② 항상 평어(보통말)을 사용
 ___③ 수업시간에만 경어를 사용하고 그 외에는 평어를 사용
 ___④ 주로 경어를 사용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평어를 사용
 ___⑤ 기타()

24. 선생님의 옷차림은 어떤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까?

- ___① 품위 유지를 위해 항상 정장 옷차림
 ___② 검소하고 단정한 옷차림
 ___③ 편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편한 캐주얼 옷차림
 ___④ 관심을 일으킬 수 있는 눈에 띄는 옷차림
 ___⑤ 옷차림은 별로 중요하지 않음

___⑥ 기타()

25. 어떤 선생님이 가장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___① 지식이 많고 공부를 잘 가르쳐 주는 선생님

___② 뛰어난 특기를 가지고 있는 선생님

___③ 경험이 풍부한 선생님

___④ 바른 인격을 소유한 선생님

___⑤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는 선생님

___⑥ 기타()

♡ 끝까지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